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한중 30주년, 관광교류의 새로운 협력

2022년 11월 1일 (화)

제주연구원 한·중 수교 30주년

제6회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 세미나 배경

-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지속 발전 가능한 양국 관계 협력과 제주-중국 간의 우호 교류 및 관광협력의 틀을 모색하기 위해 본 포럼을 마련함
- 제주는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관광목적지 중 하나이며, 지난 30년간 제주와 중국의 우호 교류 및 문화관광협력은 국제환경의 많은 변화 속에서 지속 추진되었으며, 향후 우호 관계 유지와 강화는 매우 중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연구원은 한중교류와 제주-중국의 교류협력 및 공동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 국제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한중 및 제주 중국 간 새로운 방향과 미래 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음

□ 세미나 목적

- 본 포럼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21세기해상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정책 연결 및 다양한 분야의 우호협력과 공동성장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30년간의 교류협력 역사, 그리고 제주와 중국 지역 간의 공동협력 등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협력모델 및 성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포럼 개요

- 명칭 :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 부제: 한중 30주년, 관광교류의 새로운 협력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1일(화), 메종글래드 제주, 제이드홀
- 주최·주관 :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중국주제주총영사관,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
 - 주관: 제주연구원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등록 및 개회식	13:30~14:00	세미나 등록 + VIP 간담회(13:45~14:00)
	14:00~14:20	개회식(내빈 소개 등)
		양덕순 제주연구원장(개회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축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축사)
		Wang Luxin(王鲁新) 중국주제주총영사(축사)
	14:20~14:30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특별세션	14:30~14:50	■ 기조강연 - Dai Bin(戴斌) 원장 [중국여유연구원, (ZOOM)]: 한중 30주년 및 관광교류의 새로운 방향
발표세션	14:50~15:40	□ 주제발표: 1. 주제발표: Yang Zixuan(杨梓轩) CEO [중국국제여행사그룹 아웃바운드 관광센터 (ZOOM)]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변화 2. 주제발표: 강영준 책임연구원 [제주연구원] -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Break Time	15:40~16:00	장내정리
토론세션	16:00~17:20	■ 좌장: 이희옥 교수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 □ 패널 토론(80분) - 토론 1: 조태숙 위원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국내외여행업위원회] - 토론 2: Zheng Lin(郑琳) 상무부회장 [중국여행사협회 인바운드 관광분회 (ZOOM)] - 토론 3: 김성수 대표이사 [Korea China Culture Travel] - 토론 4: 김창효 실장 [제주관광협회 마케팅실] - 토론 5: Ma Fei(马菲) 수석기자 [중국인민일보 한국지국] - 토론 6: 김규찬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토론 7: 김일기 책임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토론 8: 김재구 부장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 - 토론 9: 고경민 국장 [제주국제평화센터, 지방협력] - 토론 10: 김용현 국장 [제민일보 편집국장] - 토론 11: 이중화 책임연구원 [제주연구원]

中韩建交30周年

第六届 中·韩 21世纪海上丝绸之路 发展与合作方案

□ 论坛背景

- 2022年是中韩建交30周年,济州特别自治道与济州研究院携手中国驻济州总领事馆,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举办此次论坛,旨在进一步探索济州-中国未来可持续发展方案,加强双方旅游交流合作。
- 济州是最受中国游客欢迎的韩国旅游目的地之一,过去的30年里,两国在复杂多变的国际环境中持续稳步推进旅游,文化等多方面友好合作,如今加强各方面合作已成为双方共识。
- 济州特别自治道及济州研究院每年持续举办“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国际论坛,为探索济州-中国,乃至中韩两国的交流合作与共同发展方案做出了贡献,同时也为加强双方合作指出了新的方向。

□ 论坛目的

- 本论坛值中韩建交30周年之际旨在连接中国21世纪海上丝绸之路倡议政策,构建多方面领域的友好合作和共同发展基础。
- 借此回顾济州-中国,乃至中韩两国30年间的交流合作历史,探索新的合作模式及发展方案。

□ 论坛概要

- **论坛名称:** 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方案
- 副标题: 中韩30周年, 旅游交流新合作
- **日期及地点:** 2022年11月1日(周二), 济州Maison Glad酒店, JADE HALL
- **主办·主管:**
 - 主办单位: 济州特别自治道、中国驻济州总领事馆、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
 - 主管单位: 济州研究院

□ 会议日程(案)

时间		内容
开幕式	13:30-14:00	会议登录 + VIP 座谈会(13:45~14:00)
	14:00-14:20	开幕式(贵宾介绍等)
		梁德淳 济州研究院院长 (开幕辞)
		吴怜勋 济州特别自治道知事 (致辞)
		金京学 济州特别自治道议会议长(致辞)
		王鲁新 中国驻济州总领事(致辞)
	14:20-14:30	集体合影, 会场整理
演讲	14:30-14:50	■ 主旨演讲 - 戴斌院长 [中国旅游研究院] [北京时间：13：30~13：50, ZOOM] 主题：中韩30周年旅游交流新方向
主题发言	14:50-15:40	□ 主题发言： - 杨梓轩 总经理 [西安中国国际旅行社集团出境游中心] [北京时间：13：50~14：15, ZOOM] 主题：后疫情时代，中国出境旅游变化 - 康永準 责任研究员 [济州研究院] 主题：利用大数据吸引中国游客方案
休息	15:40-16:00	会场整理
专题讨论	16:00-17:20	■ 会议主持: 李熙玉 教授 [成均馆大学,成均中国研究所所长] □ 专题讨论(80分钟) - 讨论 1: 赵泰淑 委员长 [首尔特别市观光协会 国内外旅行业委员会] - 讨论 2: 郑琳 常务副会长 [中国旅行社协会入境游分会] [北京时间：15:00~16:30, ZOOM] - 讨论 3: 金成秀 代表理事 [韩中文化旅游公司] - 讨论 4: 金昌孝 室长 [济州观光协会 市场营销室] - 讨论 5: 马菲 首席记者 [人民日报韩国首尔分局] - 讨论 6: 金圭璨 研究委员 [韩国文化旅游研究院] - 讨论 7: 金逸起 责任研究委员 [国家安保战略研究院] - 讨论 8: 金宰求 部长 [全北研究院] - 讨论 9: 高敬旼 局长 [济州国际和平中心] - 讨论 10: 金容賢 局长 [济民日报 编辑局] - 讨论 11: 李中华 责任研究员 [济州研究院]

Contents

개회사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08
-----------------	----

축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4
왕루신 중국주제주총영사.....	16

특별세션

기조강연 한중 30주년 및 관광교류의 새로운 방향	
- Dai Bin(戴斌) 원장 [중국여유연구원]	21

발표세션

1 주제발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변화	
- Yang Zixuan(杨梓轩) CEO [중국국제여행사그룹 아웃바운드 관광센터]	39
2 주제발표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 강영준 책임연구원 [제주연구원]	59

토론세션

토론 1	
- 조태숙 위원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국내외여행업위원회]	105
토론 2	
- Zheng Lin(郑琳) 상무부회장 [중국여행사협회 인바운드관광분회]	109
토론 3	
- 김성수 대표이사 [Korea China Culture Travel]	113
토론 4	
- 김창효 실장 [제주관광협회 마케팅실].....	117
토론 5	
- Ma Fei(马菲) 수석기자 [중국인민일보 한국지국]	121
토론 6	
- 김규찬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5
토론 7	
- 김일기 책임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9
토론 8	
- 김재구 부장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	133
토론 9	
- 고경민 국장 [제주국제평화센터,지방협력].....	139
토론 10	
- 김용현 국장 [제민일보 편집국장]	145
토론 11	
- 이중화 책임연구원 [제주연구원]	149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제6회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세미나를 제주특별자치도, 중국주제주총영사관,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국제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님, 왕루신 중국주제주총영사님, 조태숙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국내외여행업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님, 내외 귀빈 및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화상으로 기조강연을 해주실 중국 여유연구원 DAIBIN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30년 동안 양국은 수출 통상, 관광,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또한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등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부 고위급 교류와 산학연 및 민간단체 간의 교류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관광교류는 지역 간 민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우호증진의 교류역할을 하고 있어 이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의 긍정적인 정서는 문화교류, 산업 협력과 국가외교의 중요한 기반이자 양국 우호교류의 촉매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의 관광교류 또한 3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삼십이립(三十而立, 삼십에 이르러 움직이지 않는 신념이 선다)이란 공자의 말처럼 제주와 중국 양 국가와 지역은 우호 교류, 문화관광협력에 있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더욱 긴밀하고도 확실한 협력이 다져져 있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의 관광목적지이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도 관광의 빗장이 잠겨 있어 양 지역의 인적 교류는 2년 넘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방한 관광비자 재개, 중국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입국허용과 격리기간 단축 등은 양 지역의 관광교류 재개라는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는 듯 합니다.

이에 금일 “제6회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국제포럼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지속 발전 가능한 양 지역의 관계 협력과 관광교류 새로운 협력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양국 전문가들이 새로운 관광협력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명철한 타전을 제시한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한중, 그리고 제주와 중국 간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협력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참석해주신 귀빈들, 포럼 개최를 준비해주신 여러 기관의 관계자와 제주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1월 1일
제주연구원장 양 덕 순

开幕词

大家下午好！

我是济州研究院院长梁德淳。

在韩中建交30周年之际，我们济州研究院同济州特别自治道、中国驻济州总领事馆、中国驻首尔观光办第六届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论坛，本人对此感到无比荣幸。

首先谨向百忙之中抽出宝贵时间前来参加此次活动的济州特别自治道知事吴怜勋先生、济州特别自治道议会议长金京学先生、中国驻济州总领事王鲁新先生，首尔特别市观光协会国内外旅行业委员会委员长赵泰淑女士，成均馆大学教授兼成均中国研究所所长李熙玉先生，在座的各位来宾，主题发言以及讲评专家表示由衷的谢意。在此我还特别感谢通过线上为我们带来主旨演讲的中国旅游研究院院长戴斌先生，谢谢您！

中韩世代比邻而居，两国人民间的友好交往绵延千年。自1992年建交以来，两国在经贸合作、人文交流等各个领域取得了突飞猛进的发展。尽管国际局势动荡不安，新冠肺炎疫情给我们造成巨大的损伤，两国政府高层、产学研、民间团体仍然保持着很好的合作与交流，中韩合作深入人心。旅游交流在地区间通过民间的直接沟通，为增进彼此了解加强友好起到了举足轻重的作用，毫无疑问地对地区经济发展带来巨大的利益。尤其是两国人民之间互相传递的正能量和好感无疑是加强文化交流、产业合作和国家外交的重要基础，也是不断带动两国友好交流的重要动力。

如今中韩两国旅游交流也迎来了30周年。正如孔子所说的“三十而立（到三十岁而立志）”一样，济州和中国两国和地区在友好交流、文化旅游合作方面，理应建立坚定的信念，夯实更加紧密和务实的合作。

济州岛虽然是中国人最喜欢到访的韩国旅游目的地，但由于新冠疫情，过去两年来两地之间的旅游交流和人文交流几乎被中断。但是最近韩国政府重启韩国短期访问签证，放宽外国留学生入境，中国也允许

外国留学生入境和缩短隔离时间等,似乎逐渐看到了重启两地旅游交流的曙光。

今天我们召开第六届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国际论坛,在中韩建交30周年,回顾两国30年间的交流合作历史,探索可持续发展的两地关系发展和旅游业的新型合作模式,其意义深远。衷心希望通过今天的论坛,两国专家为发展新型旅游合作,献言献策提出真知灼见。本人深信,这将成为促使中韩两国以及济州和中国两地开启合作历史新篇章的重要起点。

最后再次向莅临现场的所有嘉宾、为筹备本次大会作出贡献的相关人士以及济州研究院的研究专家和工作人员表示由衷的谢意。

2022年11月1日

济州研究院院长

梁德淳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제6회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를 축하합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세미나를 위해 애써주신 강연자와 발표자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와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함께해 온 다정한 친구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역대 국가지도자분들이 모두 제주를 방문했을 만큼, 오늘날에도 각별한 인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가 여러 변곡점을 지나오기도 했지만,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제주와 중국의 신뢰는 더욱 단단하고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동반자 관계로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한중 30주년, 관광교류의 새로운 협력’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관광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변할 것이며, 제주는 힐링·치유·웰니스와 로컬·생태관광 등으로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경제와 해양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향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 관광분야의 권위자이신 파이빈 중국여유연구원장님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해안과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를 귀 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회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이번 세미나가 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大家，下午好！

在中韩建交30周年之际，衷心祝贺第六届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论坛的召开。首先谨向为了筹备本次大会不辞辛劳的济州研究院梁德淳院长以及相关人士表示衷心谢意。与此同时还感谢为了我们带来主旨演讲和主题发言的演讲者以及在座的各位来宾。

济州和中国地缘相近、人缘相亲、文化相通，友好交往历史源远流长。韩中建交后，中国历代国家领导人都访问过济州，这足以证实我们之间的紧密联系。在中韩建交30年里，历经风雨洗礼和浇灌，但正如俗语所说的“风雨之后见彩虹”一样，济州与中国之间的互信正在进一步巩固。衷心希望济州-中国一如既往地能为彼此注入新能量，互为重要的伙伴。

今天我们研讨会的主题是“中韩建交30周年，旅游交流与合作的新型模式”。在大变局来临之际，旅游业格局将会发生深刻变化，济州积极探索向健康、养生、治愈和深度生态旅游转型，迎接新的挑战 and 机遇。

特别是韩国和中国在经济、海洋文化、历史等多个领域保持着良好的合作关系，有望今后交流将得到更高水平的发展。现在正是济州旅游需要提质升级，以求满足多样的中国游客需求。此时此刻，能够邀请到中国旅游行业的权威、中国旅游研究院院长戴斌先生，这是我们的荣幸。希望院长先生借此机会，为济州旅游业发展提出高见，我们将洗耳恭听。济州岛政府将认真听取在此次研讨会上提出的所有专家的宝贵意见，并努力采纳意见，将其反映到政策中来。

最后，再次祝贺召开第六届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论坛，希望此次研讨会能够为中韩旅游业增进了解，加强合作与沟通提供重要平台。

谢谢！

2022年11月
济州特别自治道知事
吴怜勋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한국과 중국,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으로 함께하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는 탐라국 시절부터 동북아 해양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요충지였습니다.

바다를 통해 중국과 해상무역을 펼쳐나갔고, 일본과도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며 해양왕국으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제주가 해양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라시아 대륙은 물론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은 물론, 제주인의 담대한 도전정신과 진취적인 모험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입니다.

코로나로 빗장을 걸어 잠갔던 나라들이 하나씩 교류의 문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중국 역시 오랜 역사 속에 함께해 온 교류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한중 30년, 관광교류의 새로운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주와 중국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협력모델을 모색해 나가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제주와 중국이 바다로 연결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며 융성했던 해양실크로드의 명성을 되살리는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제6회 한국, 중국 :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세미나’를 거듭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 경 학

大家，下午好！

首先热烈祝贺第六届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论坛的隆重召开。

在中韩建交30周年之际，能够为我们筹备如此有意义的盛会，使我们有机会探索畅谈两国合作方案，本人借此机会衷心感谢济州研究院梁德淳院长以及相关人士。还感谢为我们带来主旨演讲、主题发言以及专题讨论的各位专家和来宾。

济州自从耽罗国时期开始扮演着东北亚海洋丝绸之路中心和枢纽角色。我们通过大海与中国开展海上贸易，同时与日本积极开展了外交活动，济州岛作为海洋王国不断提升了自身地位。济州之所以能够发挥海洋枢纽的作用，是因为济州本身拥有连接欧亚大陆和东北亚的地缘政治学优势，还源于济州人具备的大胆挑战精神和进取的冒险精神。

今年中韩两国迎来了建交30个春秋。随着全球疫情逐步得到控制，周边国家也开始放宽或取消入境限制。

济州和中国有着长期以来积累下来的相互交流与合作的经验，我们应该推动双边关系更加成熟，更上一层楼。

今天研讨会的主题是“中韩建交30周年,旅游交流与合作的新型模式”，本人真诚希望借此研讨会,回顾过去展望未来，共同研究探索后疫情时代新型合作模式。

衷心期待大家深刻认识到济州和中国通过大海链接一片的事实，并为海洋丝绸之路的复兴提供智力支持，建言献策。

最后，再次祝贺大会的胜利召开，预祝第六届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论坛取得圆满成功。

谢谢。

2022年11月
济州特别自治道议会议长
金京学

축사

中韩21 世纪海上丝绸之路论坛上的讲话



尊敬的吴怜勋知事、金京学议长、梁德淳院长、李熙玉所长，参加论坛的各位来宾：

大家好！

非常高兴出席第六届中韩21 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方案论坛，谨向本次活动的举办表示热烈祝贺，对济州道厅、济州研究院连续多年举办论坛表示感谢，期待参与论坛的中韩两国专家学者、政府人士、企业代表集思广益，进一步促进济州地区中韩未来交流合作新方案！

2013 年，习近平主席提出共建“一带一路”重大倡议，包括丝绸之路经济带和21 世纪海上丝绸之路。9 年来，“一带一路”建设秉持共商共建共享原则，坚持开放、绿色、廉洁理念，努力实现高标准、可持续、惠民生目标，取得了实打实、沉甸甸的成就，已经成为深受欢迎的国际公共产品和国际合作平台。截至2022 年8 月底，中国与“一带一路”沿线国家货物贸易额累计约12 万亿美元，直接投资超过1400 亿美元。截至2021 年底，境外经贸合作园区累计投资超过430 亿美元，为当地创造了34万多个就业岗位。中方已同世界上149 个国家和32 个国际组织签署合作文件，还创建了亚投行、丝路基金，打造了最具广泛性和包容性以及最大规模的国际合作平台。当前，世界百年变局和世纪疫情叠加，全球经济复苏脆弱乏力，南北发展鸿沟进一步拉大，世界进入新的动荡变革期。

“一带一路”追求的是发展，崇尚的是共赢，是大家携手前进的阳光大道，不是某一方的私家小路，所有国家都可以加入进来，共同参与、共同合作、共同受益，为全球共克疫情、实现复苏、接续发展带来了希望。

面向未来，我们将继续高举开放合作大旗，坚持多边主义和共商共建共享原则，推动高质量共建“一带一路”。日前，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召开，这是中国在迈上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向第二个百年奋斗目标进军的关键时刻召开的一次十分重要的大会，在中国党、国家和民族发展史上具有重要里程碑意义。大会为中国未来发展领航定向，科学谋划了未来五年乃至更长时期党和国家事业发展的目标任务、大政方针。从现在起，中国共产党的中心任务是团结带领全国各族人民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实现第二个百年奋斗目标，以中国式现代化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在新征程上，中国共产党为人民谋幸福、为民族谋复兴、为人类谋进步的初心不会改变，我们愿同各国人民共同应对各种全球性挑战，携手开创人类更加美好的未来。中国将始终坚持维护世界和平、促进共同发展的外交政策宗旨，致力于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坚定维护国际公平正义，倡导践行真正的多边主

义。中方期待同所有合作伙伴一道，推动共建“一带一路”高质量发展，让世界相互联通而非彼此割裂、相互开放而非彼此封闭、相互融合而非零和排他，为实现各国共同发展作出更大贡献。

济州岛位于中日韩三国中心，参与“一带一路”建设有着得天独厚的条件和优势。近年来，随着中韩两国友好关系不断深化，济州道与中国各地区的交流与合作也取得了显著发展，呈现出人员交流多、投资金额多、合作领域多的“三多”特征。近年来，济州道克服疫情影响，积极开展对华交流合作，保证双方沟通交流不掉线，务实合作不中断。期待未来双方能够进一步推动中韩旅游产业交流合作提质升级，同时拓展新能源、电动车、生物医药、大数据等领域合作，共享健康丝绸之路、绿色丝绸之路、数字丝绸之路建设新机遇，实现双方合作共赢。

今年是中韩建交30周年。30年前，中韩两国正式建立外交关系，开启了合作向未来的新篇章。两国政治互信持续深化，互利合作成果丰硕，人文交流精彩纷呈。双方贸易额从建交时的50多亿美元增长到3600多亿美元，双向投资累计超过1000亿美元，产业链、供应链深度融合，人员往来突破千万人次，已经成为你中有我、我中有你的利益共同体。面向未来，我们愿同韩方一道，坚守初心，携手同行，合力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不断取得更大发展。

谢谢大家！

2022年11月1日
中国驻济州总领事
王鲁新

축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6 회 한국-중국 21 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행사의 개최를 열렬히 축하 드리며, 제주도청과 제주연구원이 수년째 포럼을 개최해온 데 감사를 표합니다. 포럼에 참여하신 양국의 전문가, 학자, 정부인사, 기업 대표들이 여러 의견을 모아 제주지역 중한 미래 교류 협력을 한층 더 촉진하기를 기대합니다!

2013 년 시진핑주석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포함한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중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대일로’건설은 9 년간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개방, 녹색, 청렴의 이념을 고수하며 고품질, 지속가능발전 및 민생 혜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확실히하고 목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큰 환영을 받는 국제 공공 제품과 국제 협력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2022 년 8 월까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화물 교역 누계액은 약 12 조 달러, 직접 투자는 1,400 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2021 년 말 기준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의 누적 투자액은 430 억 달러를 초과해 34 만여 개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149 개국, 32 개 국제기구와 협력 협약을 맺었으며 또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을 창립하여 가장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최대 규모의 국제협력 플랫폼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세계는 대변국과 전례없는 전염병이 겹쳐 경제 회복 능력이 취약하고 남북 발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대일로’가 추구하는 것은 발전이고 숭상하는 것은 윈윈이며 어느 사람 집 안의 좁은길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탄탄대로입니다. 모든 국가가 들어올 수 있고, 공동 참여하고 공동 협력하여 공동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전염병을 극복하고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개방과 협력의 기치를 높이 들어 다자주의와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제 20 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노정에 들어서고, 두 번째 100 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대회로써 중국 공산당, 국가와 민족 발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중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을 가르치고 향후 5 년 나아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목표, 임무 및 국정 방침을 과학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공산당의 중심 임무는 전국의 각 민족 인민을 단결시켜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두 번째 100 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

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정에서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며 인류를 위해 발전을 도모한다는 초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각국 국민들과 함께 각종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서로 협력하여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바랍니다. 중국은 시종일관하게 세계 평화 수호와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 정책을 견지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 공평정의를 확고히 수호하며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을 제창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협력 동반자와 함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세계로 하여금 서로 연결되어 분리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개방하여 봉쇄하지 않도록 하고 서로 융합하여 제로섬 게임과 배타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각국의 공동 발전 실현에 더욱 큰 기여를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중·일·한 3 국의 중심에 위치한 제주도는 ‘일대일로’ 건설 참여에 천혜의 조건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우호관계가 끊임없이 심화됨에 따라 제주도와 중국 각 지역의 교류와 협력 또한 현저하게 발전하여 인적 교류, 투자 금액, 협력 분야가 많은 ‘삼다(三多)’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도는 코로나 19 의 영향을 극복하고 대중국 교류협력을 적극 전개하여 양측의 소통과 교류가 끊기지 않고 실무 협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앞으로 양측이 관광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바이오, 보건,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확장하고 건강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윈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중한 수교 30 주년입니다. 30 년 전, 중한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계속 심화되었고 상호 이익과 협력 성과가 풍부했으며 인문 교류는 또한 다채로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국 무역액은 국교 수립 당시의 50 여억 달러에서 3600 여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투자 누계액은 1000 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이 깊이 융합되고 인적 왕래가 연간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양국은 이미 네 안에 네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이익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 함께 초심을 지키고 손에 손잡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중국주제주총영사 Wang Luxin(王鲁新)

특별세션

기조강연

한중 30주년 및 관광교류의 새로운 방향

Dai Bin(戴斌) 원장

[중국여유연구원, (ZOOM)]



한중 관광 30년, 무궁화 필 때 다시 만나길

—제6회 한중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발전 및 협력방안 세미나
기조연설

중국관광연구원 파이빈원장

2022년 11월 1일



中韩旅游三十年 木槿花开再逢君

—第六届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论坛主题演讲

中国旅游研究院院长 戴斌

2022年11月1日

01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수교 30년을 맞은
한중 관광교류,
상호 중요한 관광객 유입국이자 여행지



中国旅游研究院(文化和旅游部数据中心)
China Tourism Academy (State Cen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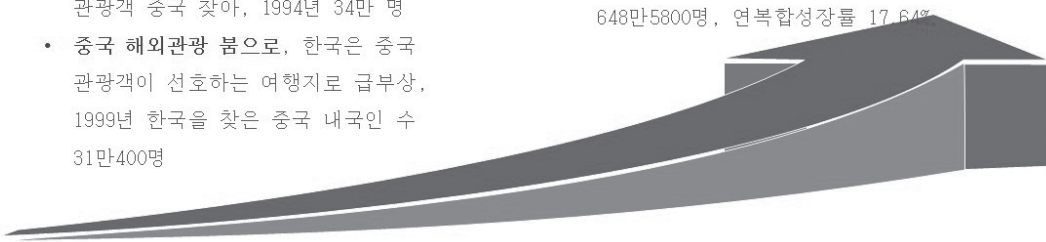
中韩建交三十年来, 旅游交流稳步增长,
两国已经互为最重要的客源地和目的地。



中国旅游研究院(文化和旅游部数据中心)
China Tourism Academy (State Cen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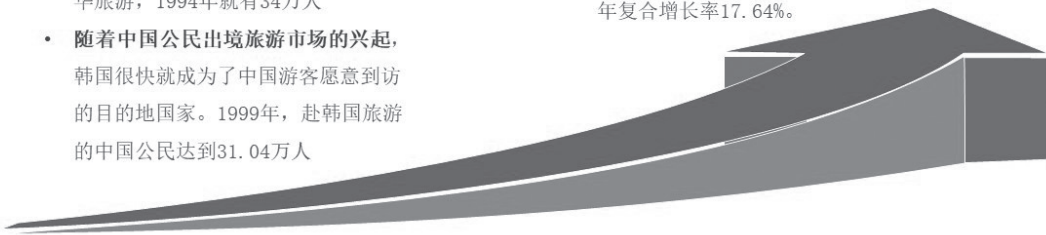
관광교류, 고속성장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많은 한국 관광객 중국 찾아, 1994년 34만 명
- 중국 해외관광 붐으로, 한국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여행지로 급부상, 1999년 한국을 찾은 중국 내국인 수 31만400명
- 과거 20년간, 한중 관광 교류는 지속적으로 고속성장
-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 수 434만6600명, 연복합성장률 10.73%
- 같은 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 648만5800명, 연복합성장률 1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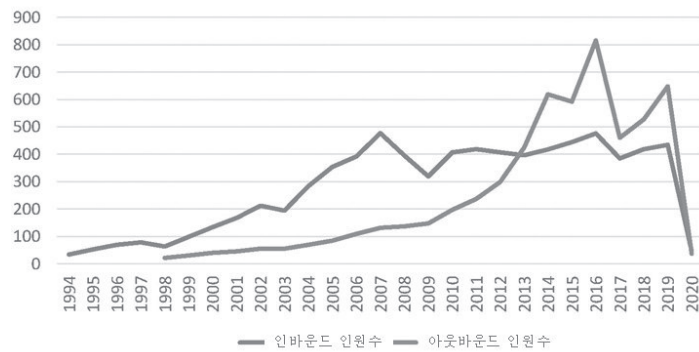


旅游交流 增长快车道

- 1992年中韩建交之后, 大批韩国人来华旅游, 1994年就有34万人
- 随着中国公民出境旅游市场的兴起, 韩国很快就成为了中国游客愿意到访的目的地国家。1999年, 赴韩国旅游的中国公民达到31.04万人
- 过去二十年, 中韩两国旅游交流进入了持续增长的快车道
- 2019年韩国来华游客434.66万人, 年复合增长率10.73%
- 同年中国公民赴韩游客648.58万人, 年复合增长率1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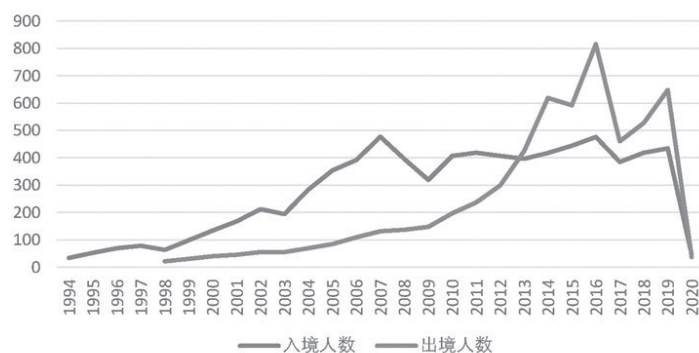


1994년~2020년 한중간 관광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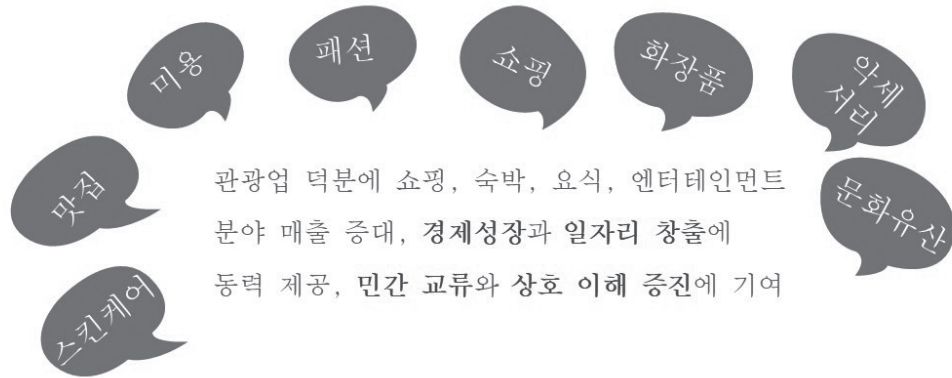
*출처: 중국 관광통계 연감(1995-2021)

1994년—2020年中韩双方游客人数情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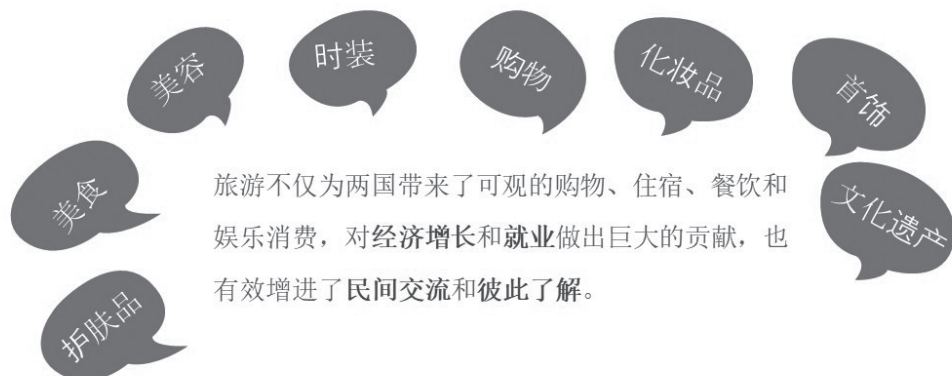


*资料来源: 中国旅游统计年鉴(1995-2021)

민간교류에 기여



贡献 民间交流



한국을 찾은 중국관광객 만족도

2013~2020년 중국 해외 여행객 만족도 조사에 의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만족도 해마다 상승, 2019년 이후 만족도는 80점에 달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만족도 지수 (2013-2020)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수	79.15	77.77	77.58	76.87	76.95	77.36	80.83	82.84
순위	14	15	13	14	19	24	19	14

*출처 : 중국 관광연구원 해외여행객 만족도 단독 조사 (2013-2020)

赴韩旅游者满意度

2013-2020年中国出境旅游者满意度调查显示, 中国公民赴韩国旅游者的满意度逐年提升, 2019年以后进入80分, 达到**满意水平**。

中国公民赴韩国旅游者满意度指数 (2013-2020)

年份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分数	79.15	77.77	77.58	76.87	76.95	77.36	80.83	82.84
排名	14	15	13	14	19	24	19	14

*资料来源: 中国旅游研究院出境旅游者满意度专项调查(2013-2020)

선호도 1위,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2002년부터 중국 내국인에 30일 무사증 제도 실시, 근거리, 많은 항공편수, 우수한 관광인프라 및 뛰어난 가성비로 중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해외 관광지로 부상

중국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곳, 제주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현지 체험으로 휴양지로서의 정체성 뚜렷

首选目的地 重访目的地



2002年就实施对中国公民30天停留免签的济州，因为距离近、航班密、接待设施完善、性价比高，而成为中国游客出境休闲度假的首选目的地。

济州还是中国游客愿意重复访问的目的地，休闲项目、沉浸式体验，共同支撑了济州的休闲消费目的地形象。

02

한중 간 정치신뢰, 경제협력,
문화교류에 비례하는 관광산업 발전



中国旅游研究院(文化和旅游部数据中心)
China Tourism Academy (State Cen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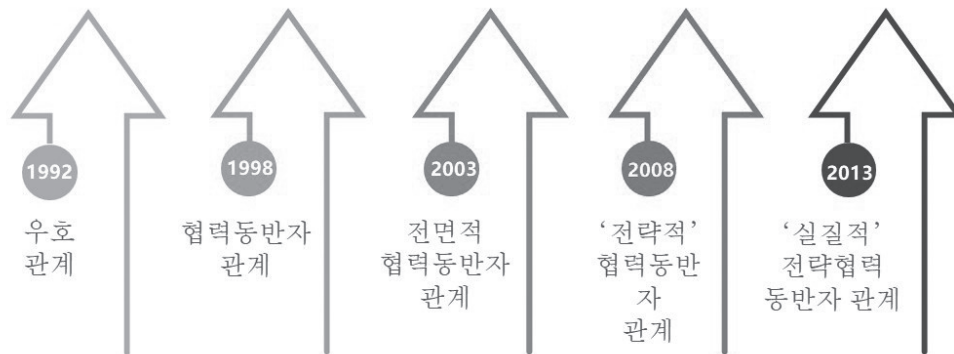
02

旅游发展离不开中韩两国的政治互信、
经贸互动和文化交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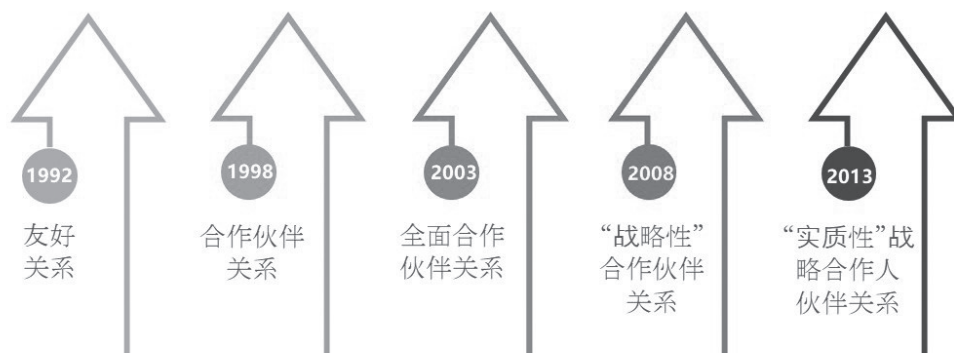
中国旅游研究院(文化和旅游部数据中心)
China Tourism Academy (State Cen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정치적 상호신뢰의 파급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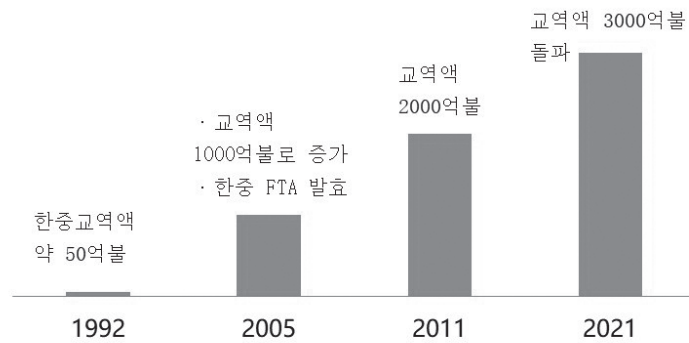
국가 지도자, 정부 대표 및 기관장과 권위있는 매체들이 국제 관광교류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역할에 더욱 주목해야, 동북아 및 동남아국가들에게는 더욱 중요

政治互信 影响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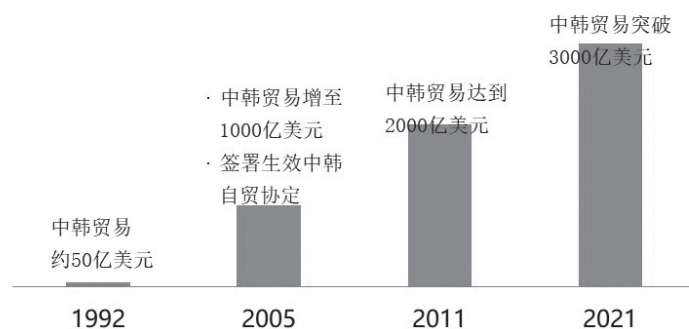
重视国家元首、政府首脑、政府高官和权威媒体在国际旅游交流中所扮演的角色，以及所发挥的作用，对东北亚和东亚国家更是如此。

경제협력, 소비수요



한중 협력으로 경제 발전, 기술 향상, 시장 확대의 결과를 얻음과 동시에
비즈니스관광과 MICE관광 수요 창출

经贸互动 消费需求



中韩合作推动了两国经济发展、技术进步和市场扩容的同时, 也带来了持续增长的商务旅行和会奖旅游的消费需求。

문화교류, 국가관광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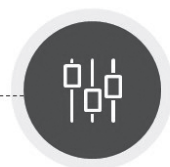
새로운 방식의 문화·외교

- 서울에 '중국문화원' 설립
- 베이징, 상하이에 각각 한국문화원과 영사관 산하 문화부처와 관광사무국 설치



전통문화

- 공자학원, '환러춘제(欢乐春节)'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한국인에게 중국 전통문화 전파



문화트렌드

- 한국 문화기업, 공연예술인, 가수, 연예인, 예능프로그램 중국 젊은층 사로잡아
- 중국 신세대 가수와 연예인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인기
- 야외촬영지는 중국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

文化交流 国家旅游形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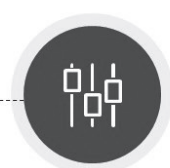
文化外交新格局

- 中国在首尔设立了中国文化中心
- 韩国在北京、上海分别设立了韩国文化院, 以及使领馆的文化部门和旅游办事处



传统文化

- 通过孔子学院、“欢乐春节”等项目, 更多韩国人得以了解中国的传统文化



潮流文化

- 韩国文化企业、表演艺术家、歌手和艺人、综艺节目在中国年轻群体中拥有广泛的影响力
- 中国新生代歌手和演艺人员在韩国年轻人群体中也有一定的知名度
- 外景地也是中国游客的打卡地

03

제도 혁신이 필요한 한중 관광 교류협력,
정치·산업·학계 공동으로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中国旅游研究院(文化和旅游部数据中心)
China Tourism Academy (State Cen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03

中韩旅游交流合作需要更多的制度创新, 推
动旅游业的可持续发展需要政产学各方的
相向而行



中国旅游研究院(文化和旅游部数据中心)
China Tourism Academy (State Cen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민意的 초석, 청소년층



여러 채널을 통해 긍정적인 면 부각, 민간 특히 청소년들의
호감도 제고



양국 체육 문화 부처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음악회,
정신문화유산 공연, 콘서트와 예능을 포함한 문화교류로 양국
청소년들이 친구가 되도록 가교 역할 **당부**



‘아시아 관광 촉진 계획’ 빈틈없이 추진

民意基础 青少年群体



多渠道释放更多的善意, 进一步增进两国民间尤其是青少年群体
的好感度



希望两国文化体育和旅游部门要推动开展更加广泛的包括音乐会、
非遗展示、演唱会和综艺在内的文化交流, 让青少年成为相知相
亲的好朋友



务实推进 “亚洲旅游促进计划”

제도 완비, 공동 홍보

한중 관광협력,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비자와 통관 정책 더욱 간소하게

친절한 언어환경과 스마트관광 인프라 조성

동아시아 문화 허브로서 공동 마케팅 추진

국제 크루즈 및 도서관광, 해양관광지 육성

세계 유산관광과 생태관광 분야 협력

完善制度 联合推广

持续推动中韩
两国旅游合作
向更高层次、
更高水平迈进

进一步实施更加便利化的签证与通关政策

建设更加友好的语言环境和智慧旅游界面

联合推广东亚文化之都

培育国际邮轮旅游、海岛旅游和海洋旅游目的地

遗产旅游和生态旅游领域的合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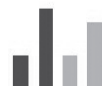
관광 투자, 시장 주체간 협력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
공감대, 사무처 설치
등 제도 혁신



관광지 홍보에 있어
지방정부간 협력
필요



교육, 연구, 미디어,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필요



관광지, 휴양지 조성, 관광
도시와 휴양지 마케팅, 야간
관광탐과 맛기행 상품 개발
등 분야에서 관광투자기관,
항공운송, 크루즈 운영사,
여행 서비스, 호텔관리,
관광리테일 등 시장 주체간
긴밀 협력 필요

한중간 업계 협력은 상품,
시장 중심에서 지분
투자로 점차 이동



한중 관광 협력은
대기업도 필요하고 중소형
기업과 전문가들의 참여도
필요

旅游投资 市场主体合作



需要中央政府层面的会
晤、共识、互设办事处
等制度创新



需要地方政府在目的
地宣传推广方面的务
实合作



需要教育、研究、媒体、
文化、艺术等多个领域的
互动



更需要旅游投资机构、航空客
运、邮轮公司、旅行服务、酒
店管理、旅游零售等市场主体
在旅游景区和度假区建设、旅
游城市和休闲街区营销、夜间
旅游组织和美食旅游产品研发
等领域的深度合作

中韩两国旅游业界之间的合
作逐渐从产品、市场层面转
向股权投资。



中韩旅游合作需要大企业，
也需要更多中小微型企业和
专业人士的参与。

내년 무궁화꽃이 만발하는 계절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제주도에
계신 여러분들과 올레길을 걷고
주상절리가 아름답게 펼쳐진
해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함께 할 미래에 대해
모색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衷心期待来年木槿花盛开的季
节能够再访韩国，和济州的新老朋
友一起去偶来小道散散步，一起在
柱状节理的海边吹吹风，畅谈我们
共同的未来。



발표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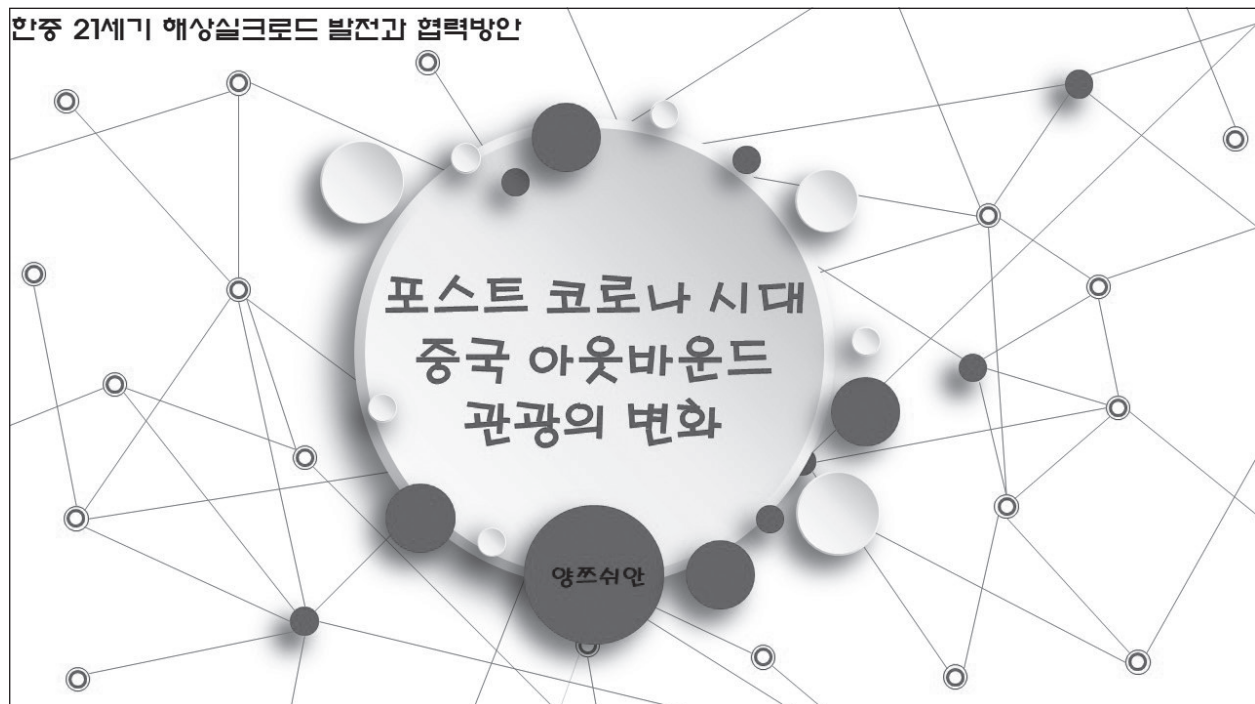
1 주제발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변화

Yang Zixuan(杨梓轩)CEO

[중국국제여행사그룹 아웃바운드 관광센터 (ZOOM)]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论坛



들어가는 말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 '삼십이립(三十而立)'의 해로 양국 관계는 한 단계 성숙해지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발전을 심화시켜야 새로운 기회에 직면해 있다.

제주도는 한중일 3국의 허브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실크로드)'에 있어 천혜의 조건과 이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한중 양국의 우호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각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도 이에 걸맞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방역이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인바운드 관광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 단기 방문 비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비록 한중 양국 관광의 완전 자유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중 관광 재개 후 한국 여행지는 매우 인기가 있을 것이다. 중국 관광 시장은 거대한 규모와 안정적인 성장세를 자랑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혁신과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한 중국 관광산업은 향후 전세계 관광산업 부활을 견인하는 동력이자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前言



今年是中韩建交30周年，三十而立，两国关系更加成熟，也面临深化发展新机遇。济州岛位于中日韩三国中心，参与“一带一路”建设有着得天独厚的条件和优势。近年来，随着中韩两国友好关系不断深化，济州道与中国各地区的交流与合作也取得了显著发展，呈现出人员交流多、投资金额多、合作领域多的“三多”特征。随着全球疫情发展逐步得到控制，包括韩国在内的周边部分国家率先放宽或取消入境旅游限制。韩国短期访问签证又开始重新回归大众视野。虽然实现中韩两国旅游的完全交流仍需时日，但中韩旅游重启后，无疑将比其他任何区域都要活跃。规模巨大、稳定且有能力持续增长的中国旅游市场和经历疫情严峻考验、具有创新精神和丰富经验的中国旅游业将成为未来世界旅游复苏的推动力和压舱石。

 목차	1 인문관계 humanistic concern 2 지명도 popularity 3 도내 서비스 Island services 4 의료 관광 Medical travel 5 홍보 마케팅 Publicity and promotion 6 인터넷 편리성 Internet convenienc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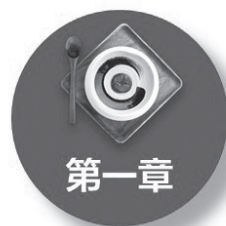
 目录	1 人文关怀 humanistic concern 2 知名度 popularity 3 岛内服务 Island services 4 医疗旅行 Medical travel 5 宣传推广 Publicity and promotion 6 互联网便利 Internet convenience
--	--



인문 관계

- ▶ 자연 귀의
- ▶ 순수 귀의
- ▶ 문화 감흥

제주



人文关怀

- ▶ 回归自然
- ▶ 返璞归真
- ▶ 感受文化

济州

인문 관계

많은 중국인들은 환영받는 곳을 가고
싶어하고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길
원하며 현지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환대와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해



人文关怀

很多中国游客更愿意去一个觉得自己受欢迎
的目的地, 可以在旅行中学习一些东西,
并在和当地人互动的过程中感受到这种欢
迎与热情。





지명도

- ▶ 동양의 하와이
- ▶ 국제 마라톤
- ▶ 자전거 대회

제주



知名度

- ▶ 东方夏威夷
- ▶ 国际马拉松
- ▶ 环济州岛自行车赛

济州

지명도

자전거 타고 제주 한바퀴

국제 철인3종 경기

올레길 걷기

제주도 CAFIED 국제대회

국제 마라톤

제주 국제 관악 타악제

.....

知名度

国际铁人三项比赛

环济州岛自行车大赛

偶来小路徒步

济州岛 CAFIED 国际赛

国际马拉松比赛

济州国际铜管与打击乐比赛

.....



도내 서비스

- 교통
- 인터넷망
- 인프라

제주



岛内服务

- 交通
- 网络
- 基础设施

济州

도내 서비스 강화



加强岛内服务





의료관광

- ▶ 건강 힐링
- ▶ 미용 성형
- ▶ 요양 치료

제주



医疗旅行

- ▶ 健康养生
- ▶ 医美整形
- ▶ 康复治疗

济州

의료관광



해외 힐링여행은 여행산업의 전환 시기에 중요한 기회의 창이 될 전망이다. ‘한국 뷰티’는 중국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으며 상품의 품질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더 많은 여성들을 한국으로 끌어 모으는 매력 포인트가 될 것이다.

医疗旅行



国际康养旅游就成为旅游业转型发展的重要机遇。“韩国医美”深受中国女性的青睐，可在安全的产品质量、亲民的价格优势上发挥探索医美体验吸引更多女性朋友到来。



홍보 마케팅

- ▶ 문화와 관광 홍보 클라우드 플랫폼 자원
- ▶ 라이브 예능을 통해 우수한 드라마 촬영지 발굴
- ▶ 관광지 홍보 영상 촬영

제주



宣传推广

- ▶ 文化和旅游传播云平台资源
- ▶ 直播综艺深度挖掘优质韩剧取景地
- ▶ 旅游景点宣传片拍摄

济州

홍보 마케팅

한국 관광당국은 문화와 관광
홍보 클라우드 플랫폼 자원을
활용하여 사전 온라인
홍보활동의 수준 제고

쿠폰이나 무료 체험, 면세점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 관광 유도



'왕홍(중국 인플루언서)'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이벤트를 펼쳐 한국 홍보

잘 기획된 라이브 예능을 통해 우수한
드라마 촬영지 컨셉여행 발굴, '온라인
관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하면 코로나
한계 극복

宣传推广

韩国旅游发展局可以充分运用文
化和旅游传播云平台资源对前期
线上宣传工作进行提质升级

发放优惠券, 免费某项目体验、免税店
折扣卷等方式激发游客向往韩国游玩



邀请相应的中国网红到韩国做活动,
为的是宣传韩国旅游业, 为当地旅游
景点拍摄宣传片

精细策划的直播综艺深度挖掘优质韩
剧取景地深度旅行, 在线旅游的方式
突破了疫情期间的时空壁垒

드라마 촬영지

아이유 '밤편지' 무비촬영지



01
OPTI
ON

03
OPTI
ON



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
촬영지

02
OPTI
ON



드라마<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04
OPTI
ON



드라마<마이걸> 야외촬영지

韩剧取景地

IU 《夜信》 MV拍摄取景地



01
OPTION

03
OPTION



韩剧《我叫金三顺》取景地

02
OPTION



热播韩剧《爱的迫降》取景地

04
OPTION



《My Girl》的外景拍摄地



인터넷 편의성

- ▶ 먹거리, 숙박
- ▶ 관광지 예약
- ▶ 지불방식

제주



互联网便利程度

- ▶ 吃饭 住宿
- ▶ 景点预约
- ▶ 支付方式

济州

인터넷 편의성



지불방식

지불 방식의 변화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원 해외여행의 중요한 축으로써 지금까지 은련(银联-중국유니온페이)은 가장 많이 쓰이는 지불 수단이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불 수단은 알리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비게이션, 관광지 예약APP

티켓, 관광지 예약, 음식점, 숙박 등 관련 어플리케이션(APP)의 등장과 활성화로 관광의 편리함 제고



숙박 및 맛집 예약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국 관광객은 과거보다 편리한 맛집, 숙박 여건을 요구하며 관련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는 중국 관광객을 니즈를 충족시켜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불러모을 것이다.

互联网便利



支付方式

支付方式的逐渐转变也是后疫情时代中国游客出国旅行的重要一环, 银联是迄今为止最常使用的支付手段, 但根据调查研究指出, 支付宝则更受年轻游客的青睐。



地图导航以景点预约APP

票务、旅游项目预约等相关APP的日益发展和完善可以有效的增加游客的旅游便利程度。



住宿以及就餐预定

后疫情时代, 中国游客比以往任何时候都更需要便利的就餐以及住宿条件, 相关中文界面的APP或者网页可以满足中国游客的需求, 从而吸引中国游客前往。



마무리

SUMMARY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중국에는 목적지에 닿는다. 관광산업이 앞으로도 수준 높은 발전과 개방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개방적이고 우수한 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한국관광의 경쟁력과 파워를 적극 키워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제협력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 교류를 강화한다. 금번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 및 협력방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总结

SUMMARY



道阻且长，行则将至；行而不辍，未来可期。旅游业要坚持高质量发展和高水平开放，努力探索明确出入境旅游开放的条件和路线图，积极提升入境、出境旅游竞争力，发挥入境、出境旅游影响力，加强国际合作、践行互利共赢的文化和多层次文明对话。最后，预祝本届“中韩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与合作论坛”圆满成功。



발표세션

2 주제발표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강영준 책임연구원

[제주연구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PhD. 강영준
계량경제학 전공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JRI 제주연구원

1



利用大数据吸引中国游客方案

PhD. 康永准
计量经济学专业
(济州研究所高级研究员)



JRI 济州研究院

1

들어가며...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1.12.)
- ‘대중국 공략’을 기조 전략(prime strategy)으로 상정
 -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으로써 중국 시장에 주목

“互通無界 好樂無限 濟州”

hùtōngwújiè, hǎolèwúxiàn jìzhōu
(후통우지에, 하오러우씨엔 지조우)

교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고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곳, 제주

기조 전략

대 중국 공략
산업투자 +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핵심 시장 공략

JRI 제주연구원

2

引语

- 第二次国际自由城市综合规划(2011年12月)
- 以“针对中国”为主要策略(prime strategy)
 - 从地缘政治学的角度聚焦中国市场, 以实现未来发展目标

“互通無界 好樂無限 濟州”

hùtōngwújiè, hǎolèwúxiàn jìzhōu
(후통우지에, 하오러우씨엔 지조우)

济州是在交流的商务活动中无边界享受无限获得感和快乐的乐园

战略总基调

针对中国
将中国当作产业投资加吸引游客的核心市场

JRI 济州研究院

2

Contents

1. 제주방문 중국관광객 관련 빅데이터 활용 연구
2. 빅데이터 기반 제주 관광통계
3.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참고 빅데이터
4.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目录

1. 研究济州中国游客相关大数据应用
2. 基于大数据的济州观光旅游统计
3. 为吸引中国游客的参考大数据
4. 利用大数据吸引中国游客方案

Chater1.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 관련 빅데이터 활용연구

Chater1.

研究济州中国游客客相关大 数据应用

빅데이터 활용 연구

- 사례 1. FIT 증가에 따른 제주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 분석 (BC카드, 2016.12.)
 - 중국인 FIT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 중국인 관광객 제주관광 코스 분석
- 사례 2. 2018 상반기 제주관광 트렌트 분석(제주관광공사, 2018.7.)
 - 「바이두」 “제주도” 탐색지수, 연관어 검색 결과 분석
- 사례 3. 코로나19 빅데이터 분석서(2020.2.~)
 - 중국인 관광객 카드이용 금액 분석

研究大数据应用

- 案例一. 因自由行增加而出现的济州游客消费行为变化分析 (BC卡, 2016年12月)
 - 中国游客自由行消费行为分析
 - 中国游客济州旅游路线分析
- 案例二. 2018年上半年济州旅游流行趋势分析 (济州观光公社, 2018年7月)
 - 「百度」的“济州岛”搜索指数, 关联词搜索结果分析
- 案例三. 新冠肺炎大数据分析报告 (2020年2月至)
 - 中国游客信用卡消费额分析

사례 1. 중국인 FIT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행태를 비교하고 단체여행객과 FIT여행객의 방문패턴을 분석
 - BC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패턴을 분석함
- 중국인 관광객 소비패턴은 다음의 세 가지를 분석함
 - 제주도 방문 중국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 분석
 - 특정 중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및 트렌드 분석
 - 춘절 등 특정기간 중국 관광객 소비행태 분석

案例一. 中国游客自由行消费行为分析

- 对于到访济州的韩国国内游客和中国游客消费行为进行比较，并分析跟团游客和自由行游客的旅游模式。
 - 利用BC卡大数据分析消费模式
- 针对中国游客消费行为分析以下三点
 - 济州中国游客消费行为变化分析
 - 针对特定中国游客群分析消费行为和流行趋势
 - 特定期间如春节等长假分析中国游客消费行为

사례 1. 중국인 FIT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 공통적으로 카드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제주시 연동'에서도 고객 유형별로 상위 매출업종이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지역 다른 소비' 패턴을 보임

• 제주도민 **먹고/쇼핑/유흥**

No.	업종명	금액비중
1	일반한식	16.5%
2	유흥주점	7.9%
3	슈퍼마켓	6.9%
4	스포츠레저용품	5.7%
5	종합병원	4.4%
6	편의점	3.4%
7	서양음식	3.1%
8	단란주점	2.9%
9	특급호텔	2.5%
10	정장(여성)	2.4%

• 국내관광객 **먹고/숙박/유흥**

No.	업종명	금액비중
1	일반한식	9.4%
2	유흥주점	4.3%
3	여관/기타숙박업	2.5%
4	편의점	2.0%
5	특급호텔	1.9%
6	슈퍼마켓	1.3%
7	스포츠레저용품	1.2%
8	서양음식	1.0%
9	단란주점	0.6%
10	화장품	0.6%

• 중국관광객 **쇼핑/숙박**

No.	업종명	금액비중
1	면세점	77.2%
2	화장품	4.4%
3	일반백화점	3.4%
4	기타건강식	3.3%
5	스포츠레저용품	2.8%
6	정장(여성)	1.3%
7	가방	1.2%
8	기타잡화	1.1%
9	액세서리	0.8%
10	특급호텔	0.6%

주1) 최근 1년 실적 기준 ('15.9~'16.8월)

주2) 제주도민, 인터넷몰 / 국내관광객 인터넷몰, 항공사, 조세서비스 업종 제외

자료 : FIT 증가에 따른 제주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 분석(BC카드, 2016.12.)

案例一. 中国自由行游客消费行为分析

- 连在信用卡集中使用的“济州市连洞”也根据顾客类型,头部销售额的业态均不同,呈现出“同一地区,不同消费”的趋势

• 济州本地人 **吃/购物/玩**

No.	业态名称	消费比重
1	大众韩餐	16.5%
2	娱乐酒吧	7.9%
3	超市	6.9%
4	体育休闲用品	5.7%
5	综合医院	4.4%
6	便利店	3.4%
7	西餐厅	3.1%
8	KTV音乐酒吧	2.9%
9	五星级酒店	2.5%
10	女士正装	2.4%

• 国内游客 **吃/购物/玩**

No.	业态名称	消费比重
1	大众韩餐	9.4%
2	娱乐酒吧	4.3%
3	旅馆/其他住宿业	2.5%
4	便利店	2.0%
5	五星级酒店	1.9%
6	超市	1.3%
7	体育休闲用品	1.2%
8	西餐厅	1.0%
9	KTV音乐酒吧	0.6%
10	化妆品	0.6%

• 中国游客 **购物/住宿**

No.	业态名称	消费比重
1	免税店	77.2%
2	化妆品	4.4%
3	百货大楼	3.4%
4	其他健康饮食	3.3%
5	体育休闲用品	2.8%
6	女士正装	1.3%
7	包类	1.2%
8	其他杂货	1.1%
9	饰品	0.8%
10	五星级酒店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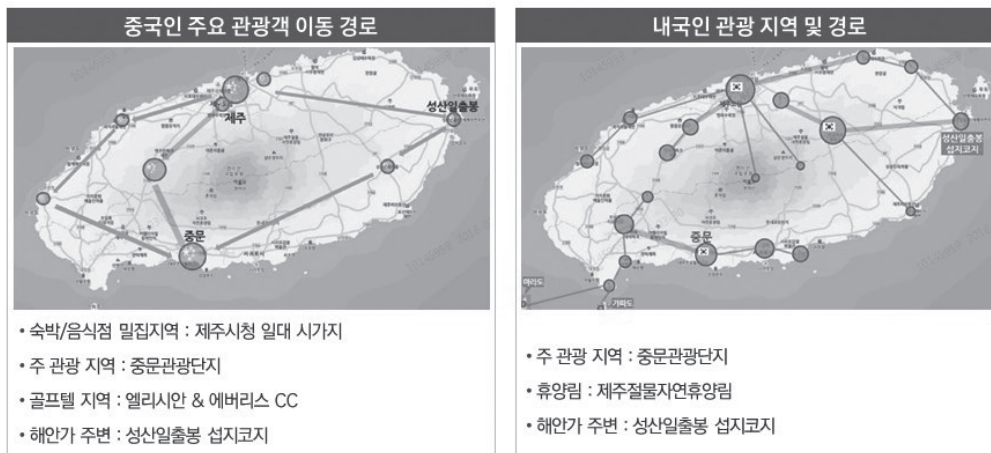
注1) 以最近1年业绩为准 (2015.9~2016.8月)

注2) 除了济州岛本地居民、购物网站/国内游客购物网站、航空公司、租税服务行业外

资料来源 : 因自由行增加而出现的济州游客消费行为变化分析(BC卡, 2016. 12.)

사례 1. 중국인 FIT 제주 관광코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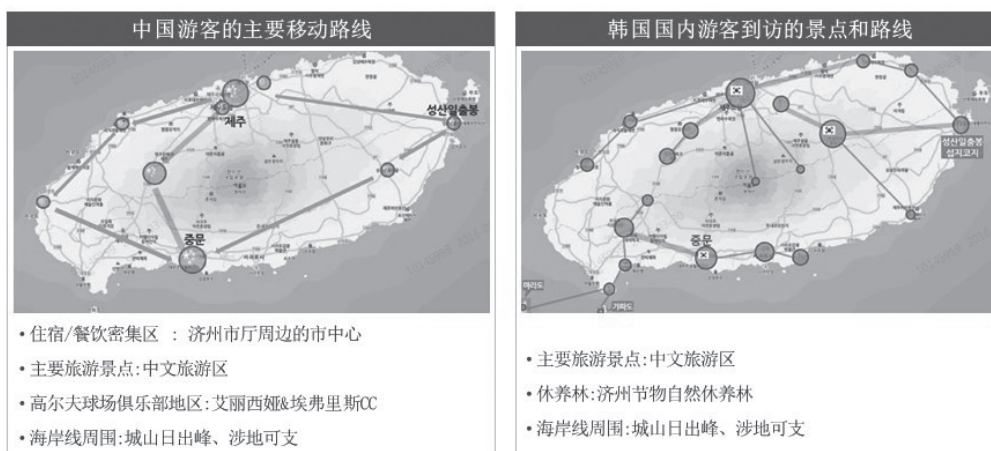
데이터 저장 분석 플랫폼 Data를 이용한 주 이동경로 수집 결과



자료 : FIT 증가에 따른 제주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 분석(BC카드, 2016.12.)

案例一，中国游客自由行旅游路线分析

利用存储分析平台的数据采集主要移动路线结果



资料来源 : 随着自由行增加而出现的济州游客消费行为变化分析(BC卡, 2016. 12.)

사례 2. 바이두 “제주도” 검색 분석



- 2018년 상반기 바이두 “제주도” 연관 단어 분석과 관심도 분석을 수행함
- 2018년 상반기 제주도 주요 연관검색어는 「무사증」, 「자유여행」, 「지도/날씨」, 「대체여행지」 등임
- 제주를 발리, 푸켓, 사이판 등의 주변 섬 관광지와 비교하고 있으며, 제주선택을 고려하는 주요 요인으로 「무사증 제도」가 큰 부분을 차지함
- 젊은 세대들이 제주를 여행하는 방법은 기존의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FIT)이고, 따라서 「자유여행」, 「지도/날씨」 등의 키워드가 주요 연관 검색어로 나타남

案例二，分析百度搜索“济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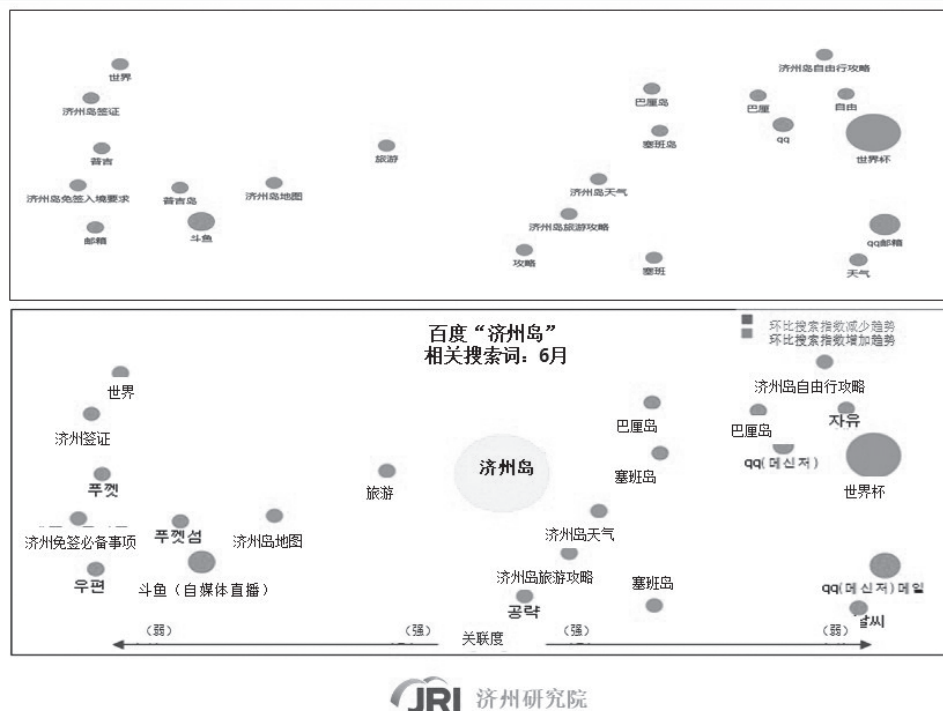
- 对2018年上半年百度“济州岛”关联词和关注度进行分析
- 2018年上半年济州岛主要相关搜索词有“免签”、“自由行”、“地图/天气”、“旅行候选地”等。
- 就济州与巴厘岛、普吉岛、塞班岛等周边岛屿旅游景点进行比较，“免签”是到访济州岛的最主要因素之一。
- 年轻人济州旅游主流不是跟团游，而是自由行(FIT)，因此“自由行”、“地图/天气”等词成为主要相关搜索词。

사례 2. 바이두 “제주도” 검색 분석



10

案例二. 分析百度搜索词“济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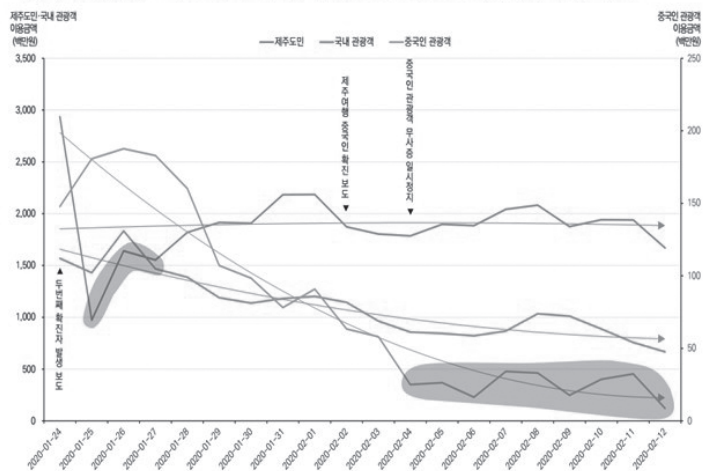


10

사례 3. BC카드 코로나19 분석서

- COVID-19 분석서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팀
 - 주간 발행
- 3차 분석서 (2020.2.17) 부터 중국인 관광객 내 용을 포함
- 98차 분석서 (2022.1.15.) 부터 중국인 관광객 내 용을 제외
 - COVID19 장기화로 중국인 관광객 방문실 적 사실상 전무함

두번째 확진자 발생 보도(2020.01.24) 이후 계층(social stratification)별·일별 이용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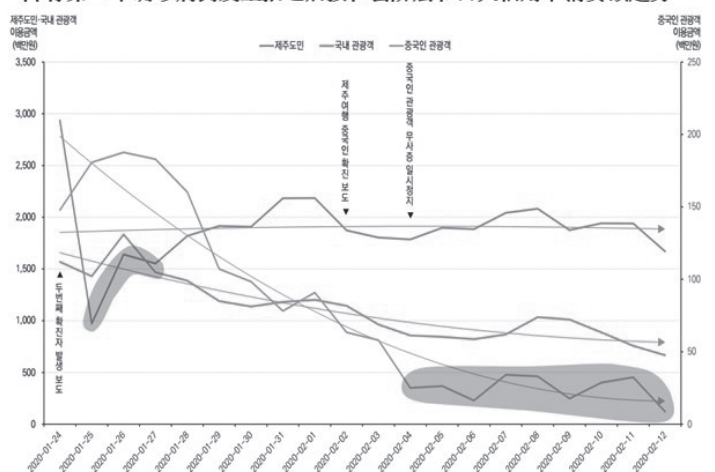


- 국내관광객, 중국인관광객 모두 두번째 확진자 발생 보도 이후 전체적으로 하향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인 관광객은 무사증 일시정지 시행(2020.02.04) 이후에는 소비세가 바닥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며, 무사증 일시정지 조치가 이용금액 감소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제주도민의 경우, 이용금액의 추기감소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줌.
- 두번째 확진자 발생보도 직후 발생한 제주도민 소비 급락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외에 명절연휴(2020.01.24~27)에 기반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案例三，BC卡新冠肺炎分析报告

- 疫情分析报告
 - 济州特别自治道数字融合和大数据小组
 - 周刊发行
- 自第三批分析报告 (2020. 2. 17) 开始纳入中国游客数据
- 自第98批分析报告 (2022. 1. 15.) 开始除掉中国游客数据
 - 因疫情常态化而事实上中国访客人数几乎为零

自有第二个确诊病例发生报道后按社会阶层和日天信用卡消费额趋势



- 国内游客和中国游客自有了第二个确诊病例发生报道后均持续呈现下降趋势
- 自从暂停免签制度后消费几乎呈现为零趋势，这充分显示暂停免签措施是消费减少的绝对因素。

与此相反，济州道民的消费未出现再下降趋势，保持一定水平。
 以此可判断自从第二个确诊病例发生后出现的消费骤降现象不仅源于疫情，还源于春节长假（2020. 01. 24~27）

사례 3. BC카드 코로나19 분석서

업종별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인 관광객)이용금액 비교 (2019.01.24~02.12 VS 2020.01.24~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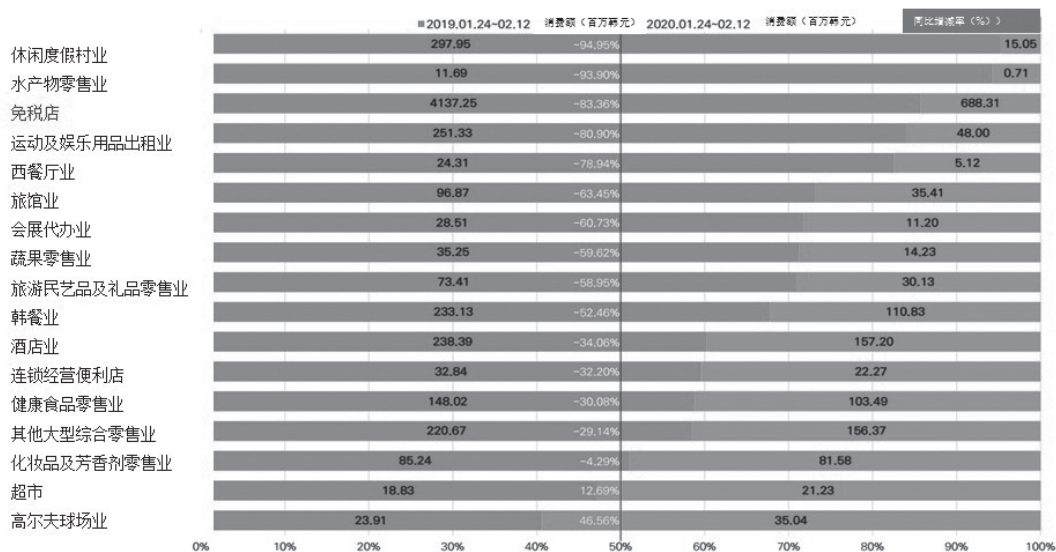
- **골프장 운영업, 슈퍼마켓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하락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아 모수자체가 부족한데서 나온 현상인 것으로 보여짐.
- 소비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 업종은 전년동기 대비 -83% 넘게 하락**하여 시장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됨.

JRI 제주연구원

12

案例三，BC卡新冠肺炎分析报告

按业态同比 (中国游客) 信用卡消费额比较 (2019年1月24日~2月12日 vs 2020年1月24日~2月12日)



除高尔夫球场业和超市外在整个业态销售额均同比下降。
我们认为与前年同期相比销售额未下降的业态是因为基数不足所以呈现此现象。
以在消费中占绝大多数的**免税店**为例，**业绩同比减少83%**，整个业态首当其冲。

JRI 济州研究院

12

Chater2. 빅데이터 기반 제주 관광통계

Chater2. 基于大数据的济州旅游统计

빅데이터 기반 제주관광통계

- 사례1. 제주 입도객 통계(제주연구원, 2021)
 - 모바일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주방문 관광객 수 집계
- 사례2. 제주관광 수입 추계(제주연구원, 2021)
 -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주관광 수입액(매출액) 집계
 - 2015년도부터 매년도 추계 중
- 사례3. 제주관광 생산 통계(제주관광공사, 2022)
 - 기업정보 빅데이터, 신용카드 빅데이터, AI모형을 이용한 제주 관광산업 기업경기 지수
 - 제주대학교 연구진 통계 개발 중(2022년 12월 완료 예정)

基于大数据的济州旅游统计

- 案例一. 济州岛到访人数统计(济州研究院, 2021)
 - 利用移动大数据统计到访济州岛游客人数
- 案例二. 济州旅游收入估算(济州研究院, 2021)
 - 利用信用卡大数据统计济州观光收入(销售额)
 - 自2015年开始每年估算
- 案例三. 济州旅游生产统计(济州观光公社, 2022)
 - 利用企业信息大数据、信用卡大数据、AI模型的济州旅游产业企业景气指数
 - 济州大学研究小组正研发统计中(预计2022年12月完成)

사례 1. 제주 입도객 통계

- 제주입도통계(제주관광통계)는 제주 도정의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수를 모두 제공함
-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이 항공여객과 해운여객의 두 가지뿐임
- 따라서, 항공 또는 해운 여객 이용하여 입도한 탑승객의 수를 집계할 수 있음
- 인바운드 외국인 수, 해운 여객을 이용한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수를 집계할 수 있음

案例一. 济州入岛客统计

- 济州岛游客数统计（济州观光统计）是项在济州岛政府制定观光政策和发展旅游业中最为重要的基本资料。
 - 提供到访济州的外国和国内游客人数。
- 由于岛屿特殊的地理特点，到访的交通工具仅有空运和海运两种。
- 因此，利用空海运乘客人数可统计到访济州的人数。
- 可以全部统计到入境外国游客人数和利用海运游客的国内外游客人数。

사례 1. 제주 입도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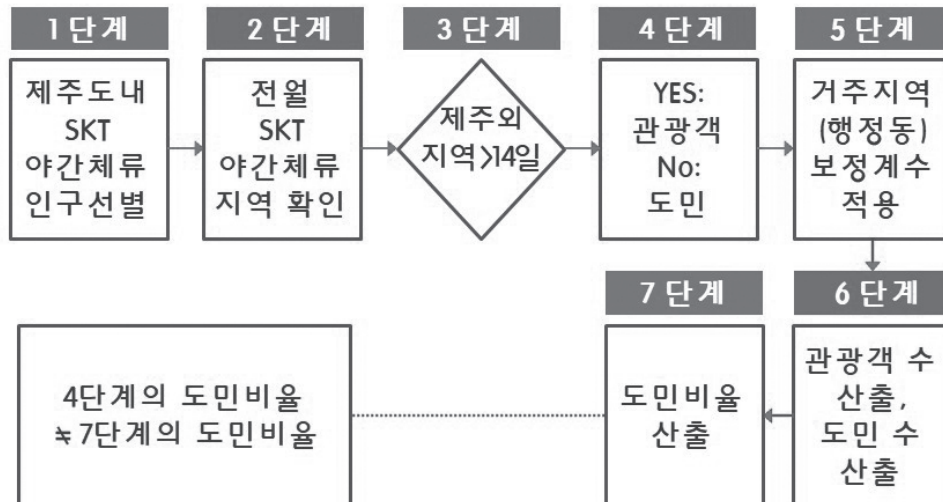
- 그러나, 국내선 항공 여객을 이용하여 제주로 입도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집계가 어려움
 - 매표시스템이 전산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는 공항에서 티켓팅을 위해 거주지 정보가 있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함
 - 국내선 항공 여객을 이용한 외국인의 경우, 제주자치경찰에서 치안 등을 목적으로 탑승객의 국적과 수를 조사함
- 모바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여객 탑승객 중 제주도민과 내국인 관광객을 분리함
 - 내국인 관광객 수 = (한국인 탑승객 수) * (제주도외 거주민 비율)
 - 제주도외 거주민 = (제주를 방문한 날 기준, 이전 달에 15일 이상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 기지국 접속 정보가 잡힌 사람)

案例一. 济州入岛客统计

- 但, 很难统计利用国内航线到访济州的国内游客人数。
 - 截止1990年代, 售票系统尚未计算机化, 在机场购票时, 须确认有居住地信息的居民身份证。
 - 以利用国内航线的外国游客为例, 由济州自治警察以治安等为目的调查乘客的国籍和人数
- 利用移动大数据, 从国内航班乘客中分开济州岛居民和国内游客。
 - 国内游客数 = (韩国乘客数) * (非济州岛居民比率)
 - 非济州岛居民 = (以到访济州日为准, 上个月在济州岛以外地区不少于15天有连接通信基站信息的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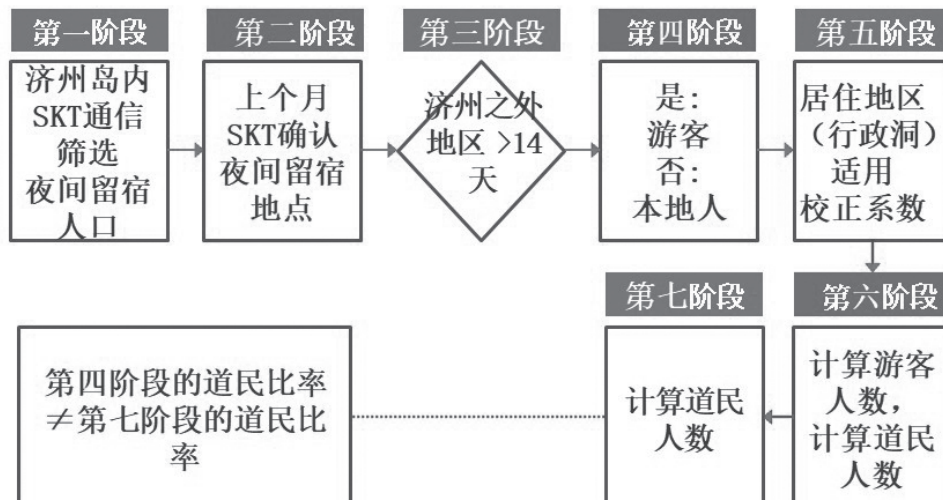
사례 1. 제주 입도객 통계

- 모바일 빅데이터 이용 관광객 비율, 도민 비율 산출 과정



案例一. 济州入岛客统计

- 利用移动大数据计算游客比率和道民比率的过程



사례 1. 제주 입도객 통계

- 2019년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도민, 내국인 입도객 추이 (단위 : 명, %)

월	입도객수(명)			상대비율(%)	
	도민	내국인	합계	도민	내국인
1월	184,059	869,078	1,053,137	17.5	82.5
2월	176,115	855,294	1,031,409	17.1	82.9
3월	163,779	865,281	1,029,060	15.9	84.1
4월	161,272	963,469	1,124,741	14.3	85.7
5월	170,058	1,005,185	1,175,243	14.5	85.5
6월	177,470	962,159	1,139,629	15.6	84.4
7월	160,727	991,745	1,152,472	13.9	86.1
8월	158,781	1,106,704	1,265,485	12.5	87.5
9월	185,791	823,345	1,009,136	18.4	81.6
10월	167,636	1,084,522	1,252,158	13.4	86.6
11월	167,663	985,928	1,153,591	14.5	85.5
12월	163,593	963,123	1,126,716	14.5	85.5
합계	2,036,944	11,475,833	13,512,777	15.1	84.9

자료)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연구(제주관광공사, 2020.11.) 재구성

JRI 제주연구원

18

案例一. 济州入岛客统计

- 2019年基于移动大数据道民和国内游客量趋势 (单位: 名, %)

月份	到访人数(名)			相对比例(%)	
	道民	韩国公民	合计	道民	韩国公民
1月	184,059	869,078	1,053,137	17.5	82.5
2月	176,115	855,294	1,031,409	17.1	82.9
3月	163,779	865,281	1,029,060	15.9	84.1
4月	161,272	963,469	1,124,741	14.3	85.7
5月	170,058	1,005,185	1,175,243	14.5	85.5
6月	177,470	962,159	1,139,629	15.6	84.4
7月	160,727	991,745	1,152,472	13.9	86.1
8月	158,781	1,106,704	1,265,485	12.5	87.5
9月	185,791	823,345	1,009,136	18.4	81.6
10月	167,636	1,084,522	1,252,158	13.4	86.6
11月	167,663	985,928	1,153,591	14.5	85.5
12月	163,593	963,123	1,126,716	14.5	85.5
共计	2,036,944	11,475,833	13,512,777	15.1	84.9

资料来源) 济州观光大数据热点分析研究 (济州观光公社, 2020.11.) 重组

JRI 济州研究院

18

사례 2. 제주관광 수입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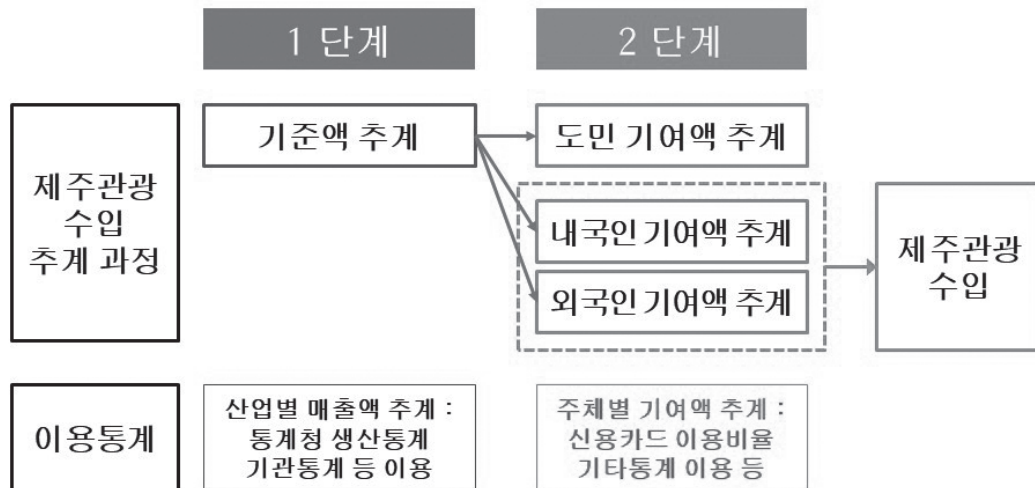
- 2014년도까지 제주지역 관광수입은 관광객 1인당 평균지출금액을 총 방문관광객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됨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관광공사는 워킹그룹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입 추계방법 개발함(2016.9.29.)
 - 「제주관광 수입」은 1년 동안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방문객에 의해 제주지역에 발생한 제주관광산업의 매출액의 합계를 의미함
- 새로운 방법은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와 신용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생산액(매출액)을 추계함
 - (제주관광 수입) = (업종별 매출액) X (관광객 기여율)
 - (관광객 기여율) = (해당 업종 신용카드 사용액 중 관광객 비율)

案例二. 济州旅游收入估算

- 截至2014年, 以游客人均支出金额乘以游客总数的方式估算济州岛观光收入。
- 济州特别自治道、韩国银行济州本部、济州观光公社共同组织工作小组开发新型的观光收入估算方法(2016年9月29日)
 - “济州观光收入”指在一年期间, 到访济州的国内外游客在济州岛内消费的济州旅游产业总销售额。
- 新型统计方法利用韩国统计厅发布的统计资料和信用卡大数据估算生产总额(销售额)
 - (济州观光收入) = (按业态销售额) X (游客贡献率)
 - (游客贡献率) = (在某种业态游客占信用卡消费额比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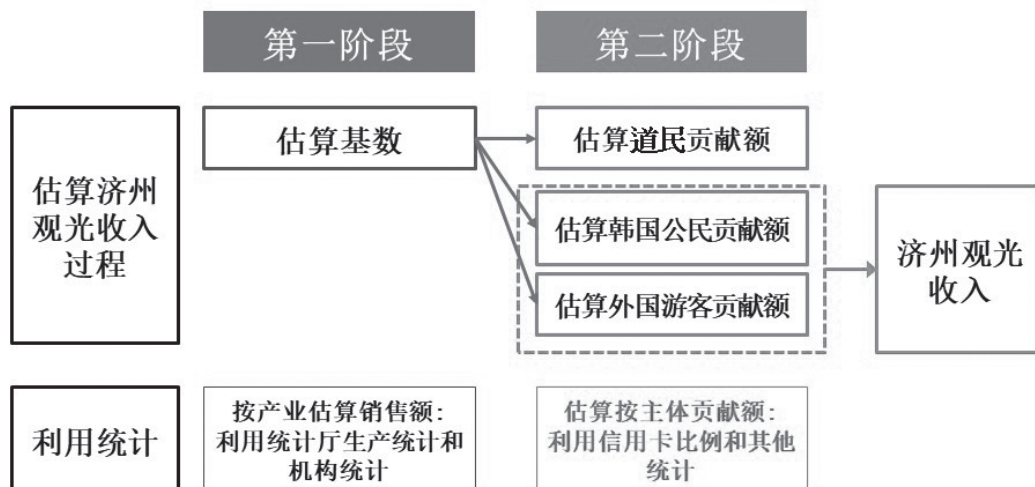
사례 2. 제주관광 수입 추계

- 제주관광 수입 추계 과정



案例二. 济州旅游收入估算

- 济州旅游收入估算过程



사례 2. 제주관광 수입 추계

Jeju Tourism Revenue in 2020

☐ Overall*

- Composition: Domestic & international tourism revenue
- Businesses: Retails, Lodgings, Restaurants, Transportation, Arts, Sports & Leisure, Others
- Sum: 6,319m USD in 2019 / 3,375m USD in 2020 (tentative)**
 - Domestic: 3,779m USD in 2019 / 2,921m USD in 2020 (tentative)
 - International: 2,540m USD in 2019 / 431m USD in 2020 (tentative)

*Approach: Production method from national income estimation methods.

1 USD = 1,165.65 KRW (2019) / 1 USD = 1,180.05 KRW (2020)*

***Source: Economic Statistics System, Bank of Korea

案例二. 济州旅游收入估算

Jeju Tourism Revenue in 2020

☐ Over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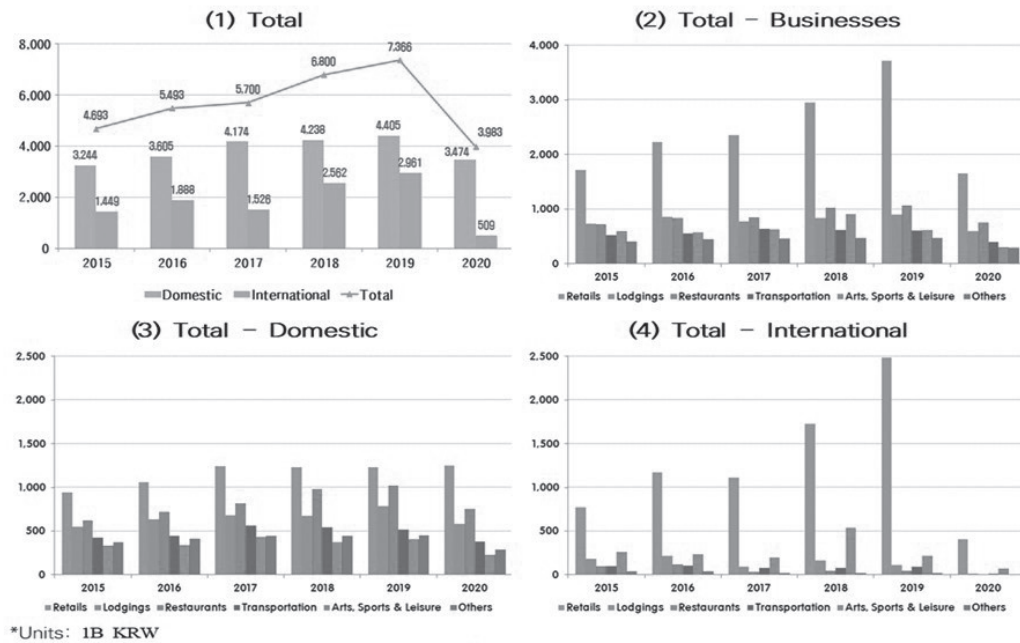
- Composition: Domestic & international tourism revenue
- Businesses: Retails, Lodgings, Restaurants, Transportation, Arts, Sports & Leisure, Others
- Sum: 6,319m USD in 2019 / 3,375m USD in 2020 (tentative)**
 - Domestic: 3,779m USD in 2019 / 2,921m USD in 2020 (tentative)
 - International: 2,540m USD in 2019 / 431m USD in 2020 (tentative)

*Approach: Production method from national income estimation methods.

1 USD = 1,165.65 KRW (2019) / 1 USD = 1,180.05 KRW (2020)*

***Source: Economic Statistics System,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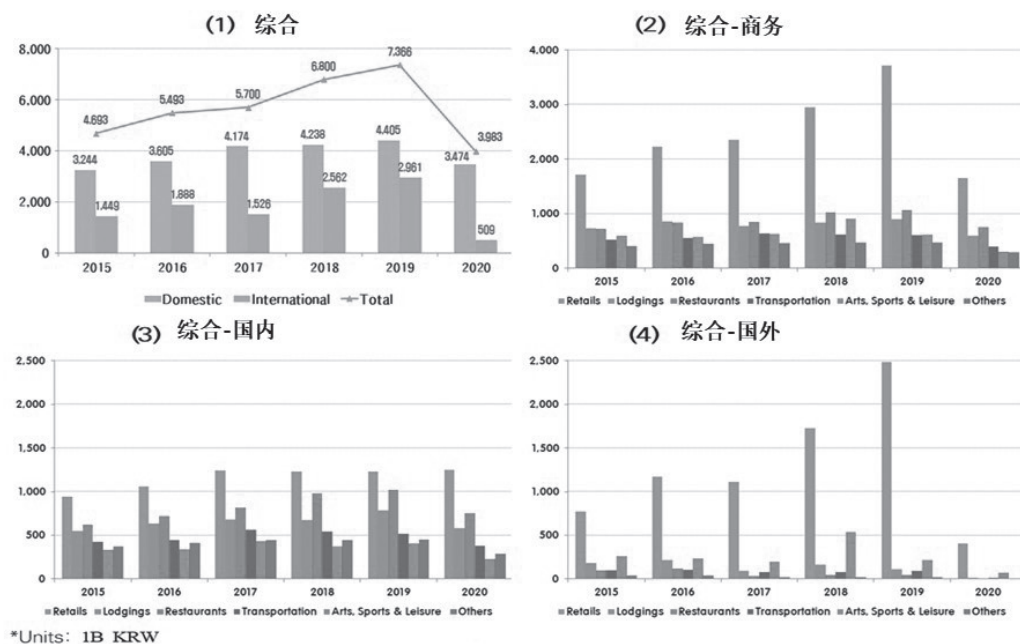
사례 2. 제주관광 수입 추계



JRI 제주연구원

22

案例二. 济州旅游收入估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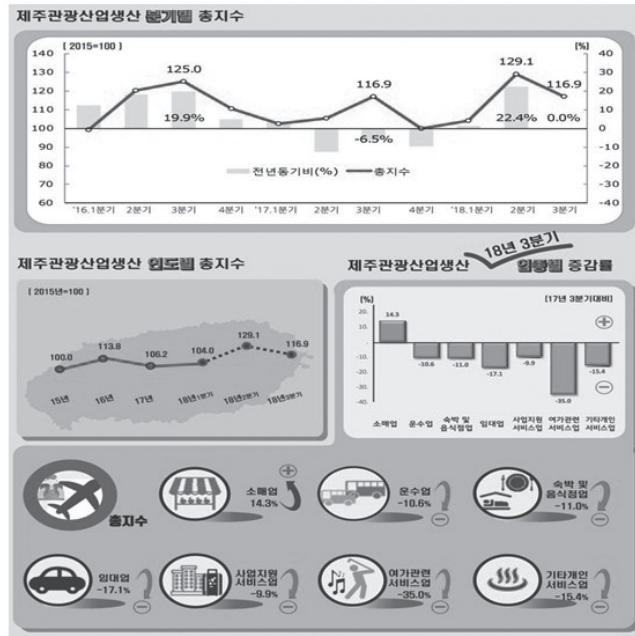


JRI 济州研究院

22

사례 3. 제주관광 생산 통계

- 호남지방통계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제주관광산업생산 동향』 통계를 개발함
- 그러나, 2019년부터 『제주관광산업생산 동향』의 통계작성이 중단됨
- 제주관광공사는 후속조치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주 관광산업 통계』의 개발에 착수함(20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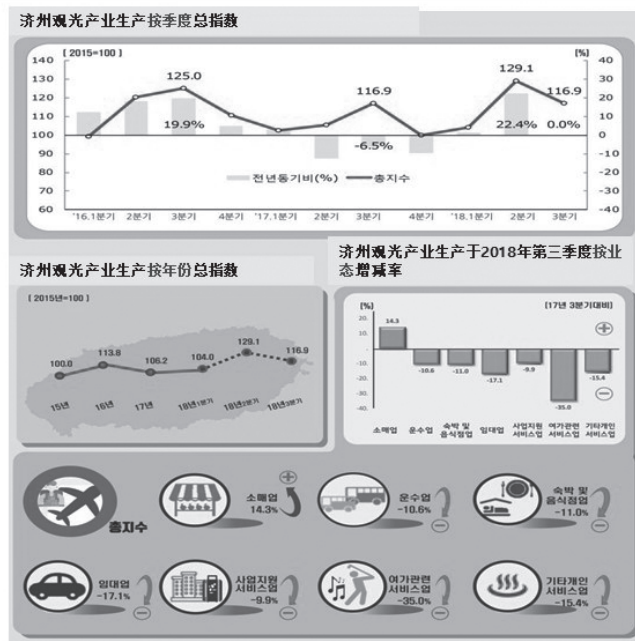


JRI 제주연구원

23

案例三. 济州旅游生产统计

- 湖南地方统计厅从2017年到2018年两年间开发《济州观光产业生产动向》统计
- 但, 从2019年开始《济州观光产业生产动向》的统计编制工作被中断。
- 济州观光公社接手此工作, 着手开发利用大数据的《济州观光产业统计》(2022年6月)



JRI 济州研究院

23

사례 3. 제주관광 생산 통계

- 『제주 관광산업 통계』는 기존 통계가 대면조사를 통해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의 매출액 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을, 상용 빅데이터(카드소비, 기업신용정보)로 대체함

	대면조사(기존)	빅데이터(신규)
적시성	시차발생(조사집계, 결과발표)	실시간 통계산출
신뢰성	조사 불응, 부정확 응답 수시 발생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추출
정확도 (표본오차)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기준 2,200여개 표본	2020년 기준, 한국평가데이터 42개 대표업종 보유데이터 전체 (18,000여개)
산출물의 품질	공공데이터(고용) 결합 가능하나, 2,200여개 표본에 불과	많은 표본수로 공공데이터 결합 시 데이터분석 결과의 품질 및 중요도 향상
비용	조사비용	데이터 추출 비용(저렴)
추가분석		제주도 관광산업 전체 매출규모 추정 가능

案例三. 济州旅游生产统计

- 以往的统计主要依靠面对面调查收集信息，与此相比如今《济州旅游产业统计》主要采用常用的大数据(如信用卡消费、企业信用信息)手段。

	面对面调查(以往)	大数据(如今)
及时性	有时差存在(调查统计, 发布统计)	实时算出统计
可靠性	不配合调查和回答不正确的频繁发生	算出可靠的数据
正确度 (抽样误差)	以2015年为准经济普查采用标准2200多个样本	以2020年为准, 韩国评价数据42个标杆行业拥有的全部数据(1.8万多个)
算出结果的 可靠性	可与公共数据(雇佣)相结合, 但样本仅有2,200多个	由于样本数量足够多, 与公共数据相结合时数据分析结果的可靠性和重要程度提升
费用	调查费用	提取数据的费用(廉价)
追加分析		可估算整个济州岛旅游产业销售规模

Chater3.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참고 빅데이터

Chater3.

为吸引中国游客的参考大数据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참고 빅데이터

- 사례 1.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지도(제주관광공사)
 - 모바일과 네비게이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내국인 관광객의 지리적 밀도정보를 제공함
 - 중국인 관광객 자유여행 시 여행코스 설정 등에 활용 가능
- 사례 2. 제주데이터허브(제주특별자치도)
 -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함
- 사례 3. 한국관광 빅데이터랩(한국관광공사)
 - 방한 외국인 정보, 지역별 관광현황(방문객, 주요 방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함
 - 제주 외의 국내 타지역에 대한 연계 여행코스 설정 등에 활용 가능

为吸引中国游客的参考大数据

- 案例一. 实时景点拥堵图(济州观光公社)
 - 利用移动和导航软件大数据向国内游客提供地理拥堵度信息
 - 中国游客自由行时可将它用于设定旅行路线上
- 案例二. 济州数据枢纽(济州特别自治道)
 - 包括中国游客信息在内提供跨领域数据。
- 案例三. 韩国旅游大数据实验室(韩国观光公社)
 - 提供访韩外国人信息、各地区旅游现状(访客、主要到点)等信息
 - 除济州岛之外, 可用于国内其他地区的旅行延伸路线设定上等

사례 1.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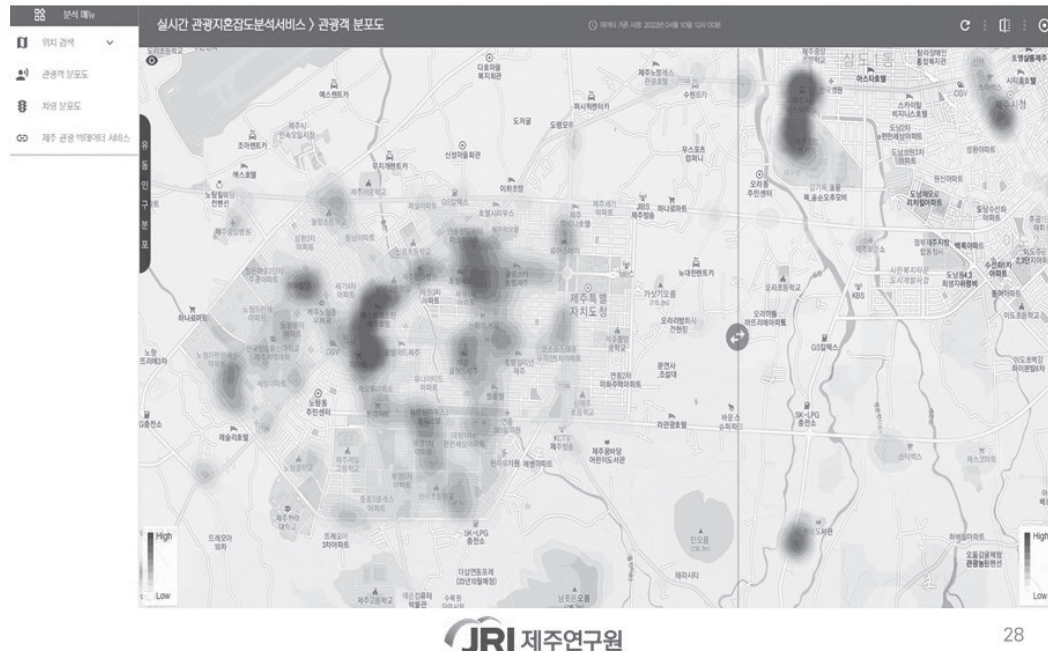
- 제주관광공사는 SKT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 분포를 5분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를 시작함(2020.11.10.)
- 실시간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3시간 동안 밀집도가 가장 증가한 곳, 24시간 동안 지역별 인기도와 혼잡도를 확인 가능함
-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는 특정지점 기준 100~5000m 반경까지 유동인구 수와 관광객 비율을 알 수 있음
-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는 「빅데이터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관광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빅데이터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은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유사한 개념으로 제주 지역에 대한 민간과 공공 영역의 다양한 관광분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임

案例一. 实时景点拥堵图

- 济州观光公社利用SKT通信基站数据开始提供“景点拥堵图实时分析服务”，它每五分钟更新流动人口分布。(2020年11月10日)
- 实时可以了解道民和游客分布情况，也能看到最近3个小时内密集度暴增的地点和24小时内按地区人气度和拥挤度。
- 通过景点拥堵图实时分析服务可以了解从特定地点到100~5000米半径内流动人口数量和游客比例。
- 景点拥堵图实时分析服务是研发“基于大数据旅游服务平台”过程中的阶段性成果，开发宗旨为提供个性化定制服务。
 - 基于大数据的旅游服务平台类似于韩国旅游数据实验室，是个可以分析济州地区民间和公共领域多种旅游数据的平台。

사례 1.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지도

<https://www.visitjeju.net/kr/bigdatamap/>



案例一. 实时景点拥堵图

<https://www.visitjeju.net/kr/bigdatamap/>



사례 1.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지도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 > 차량 분포도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 > 차량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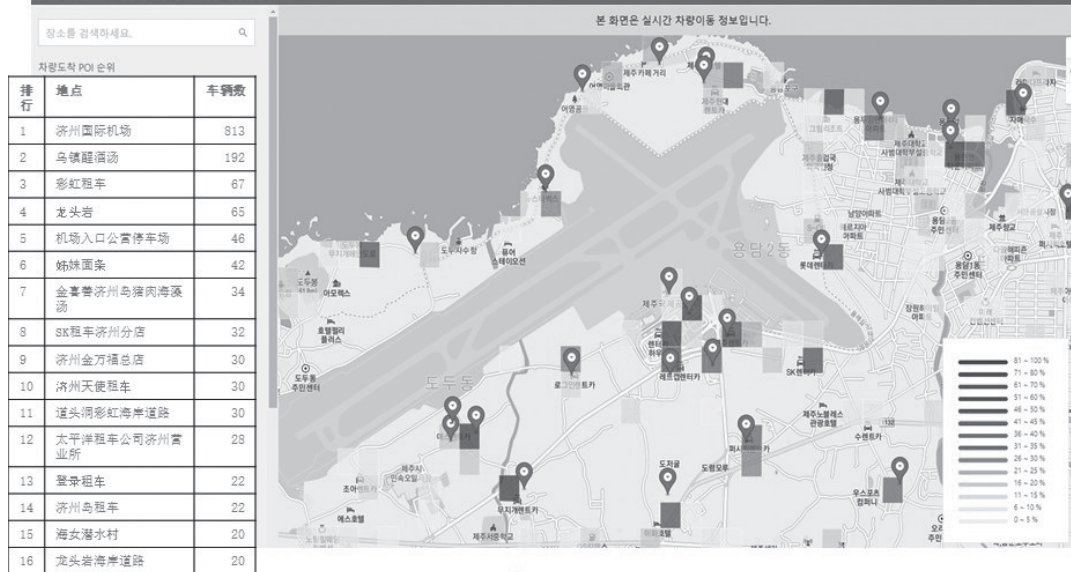
JRI 제주연구원

29

案例一. 实时景点拥堵图

实时景点拥堵图分析服务 > 车辆分布图

景点拥挤度实时分析服务 > 车辆分布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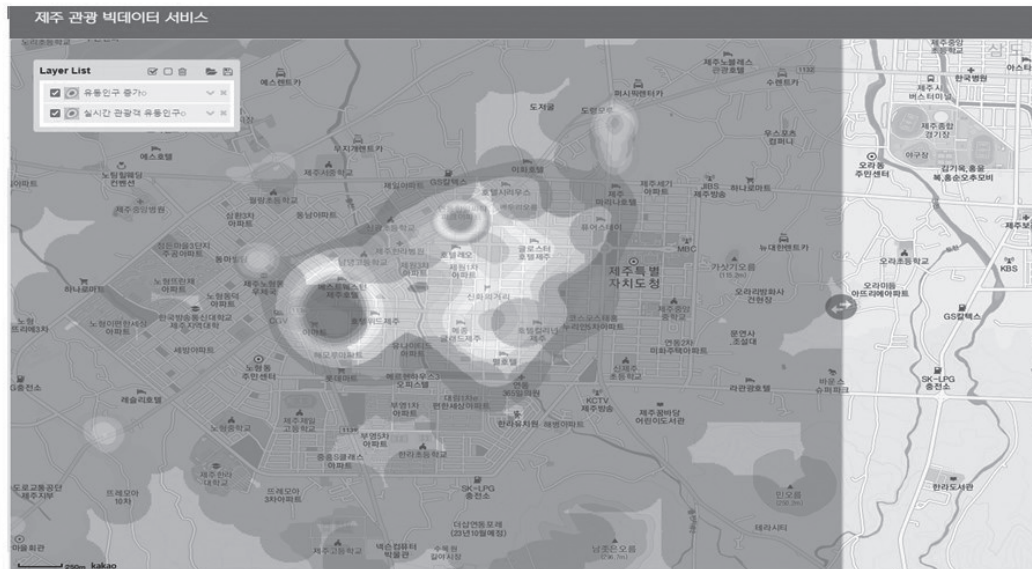


JRI 济州研究院

29

사례 1.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지도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 > 제주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 GIS 분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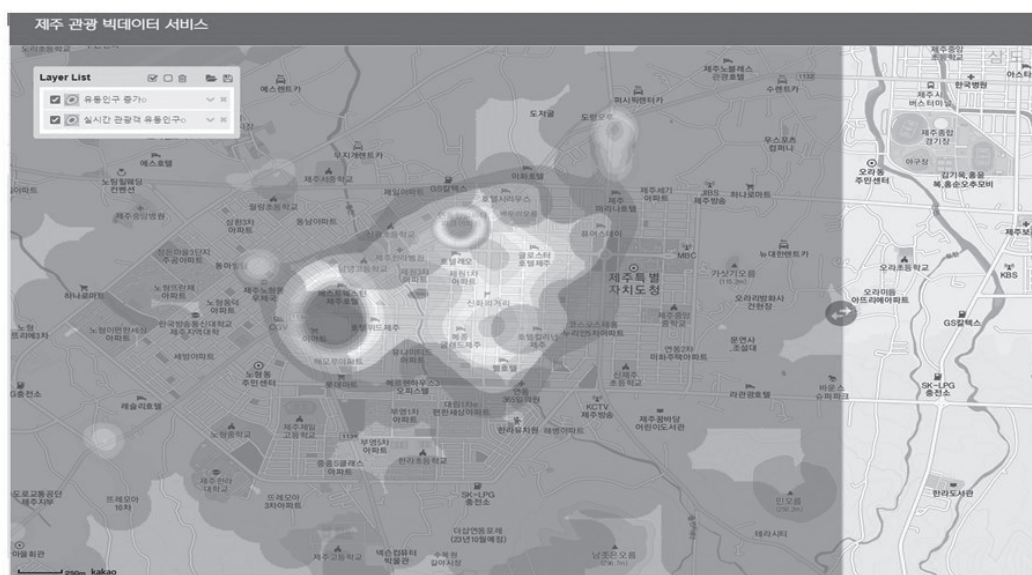


JRI 제주연구원

30

案例一. 实时景点拥堵图

景点拥堵图实时分析服务 > 济州旅游大数据服务 > GIS分析支持



JRI 济州研究院

30

사례 2. 제주데이터허브

- 「제주 데이터허브」는 다음카카오와 민간협력을 통해 2017년에 구축되었고, 2019년부터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음
- 제주데이터허브는 관광을 포함하여 제주관련 데이터, 인포그래픽, AI 분석 리포트를 제공함
 - 차트인포그래픽 탭에서 제주데이터허브에서 제공하는 주요 데이터들을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조건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의 추출도 가능함
- 제주빅데이터센터에 대한 사용 데이터목록, 분석실 예약, 교육장예약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함
 - 제주빅데이터센터는 제주빅데이터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분석실, 교육장 등을 갖춘 시설

案例二. 济州数据中心

- 通过与Daum Kakao和民间携手合作，于2017年构建“济州数据中心”，从2019年开始由济州科技园运营。
- 济州数据中心包括旅游，还提供济州有关的数据、信息图、AI分析报告
 - 在图表信息标签栏上,可确认济州数据中心提供的可视化数据,还可以通过搜索条件提取想要的数据。
- 同时还提供利用济州大数据中心数据目录、预约分析室、培训场所等功能。
 - 济州大数据中心拥有可以衔接济州大数据平台的电脑、分析室、培训场所等设施。

사례 2. 제주데이터허브

<https://www.jejudatahub.net/>



案例二. 济州数据中心

<https://www.jejudatahub.net/>



사례 2. 제주데이터허브

데이터 : 제주데이터허브 초기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자료를 자유롭게 업로드 하는 형태였음

☒ 전체 1175
☐ 관광, 여행 431
☐ 보건, 복지 146
☐ 교육, 행정 133
☐ 소비, 경제 115
☐ 환경, 재난 112
☐ 교통, 안전 94
☐ 농축수산 87
☐ 인구, 생활 57

데이터 유형
☒ 전체 1175
☐ API 82
☐ 파일 592
☐ 링크 523

인증 기관
☐ 허브인증 985

강, 여행] 제주관광공사_제주방문관광객_통계
 <01-18> | 매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를 각 권역...

4 [교! 2021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
 2022-03-17 | > 50m 격자 단위 월별 토요일의 렌터카 체류 빈...

제외할 검색어는 앞에 '-'를 입력하세요. (예 :~공함)

총 1175 개 항목

번호	데이터명	수정일	소유자	조회	즐거찾기
☆ 1175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2021년 하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83	1
☆ 1174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2021년 상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22	0
☆ 1173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2020년 하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9	0
☆ 1172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2020년 상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11	0
☆ 1171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이동 빈도[50m 격자] (2021년 하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10	0

33

案例二. 济州数据中心

数据 : 济州数据中心最早版本采用用户在平台上自发上传资料方式

☒ 전체 1175
☐ 관광, 여행 431
☐ 보건, 복지 146
☐ 교육, 행정 133
☐ 소비, 경제 115
☐ 환경, 재난 112
☐ 교통, 안전 94
☐ 농축수산 87
☐ 인구, 생활 57

데이터 유형
☒ 전체 1175
☐ API 82
☐ 파일 592
☐ 링크 523

인증 기관
☐ 허브인증 985

강, 여행] 제주관광공사_제주방문관광객_통계
 <01-18> | 매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를 각 권역...

4 [교! 2021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
 2022-03-17 | > 50m 격자 단위 월별 토요일의 렌터카 체류 빈...

제외할 검색어는 앞에 '-'를 입력하세요. (예 :~공함)

총 1175 개 항목

번호	데이터명	수정일	소유자	조회	즐거찾기
☆ 1175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2021년 하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83	1
☆ 1174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2021년 상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22	0
☆ 1173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2020년 하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9	0
☆ 1172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체류 빈도[50m 격자] (2020년 상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11	0
☆ 1171	[교통, 안전] 월별 렌터카 이동 빈도[50m 격자] (2021년 하반기) [FILE]	2022-03-17	디지털융합과	10	0

33

사례 2. 제주데이터허브

인포그래픽 > 차트인포그래픽

CCTV 위치 정보(지도)

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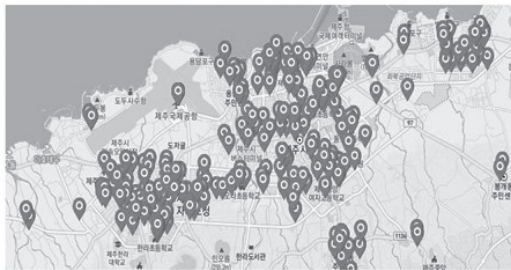
데이터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CCTV 위치 정보
- 2021.09.30 기준
- 출처: LOCALDATA

데이터 수집기간
2020.07.07 ~ 2021.01.06

설치 목적

전체

검색



시도별 양식 생산량 및 생산 금액 추이(연간)

표 49

데이터 설명
- 시도별 양식 생산량 및 생산 금액 추이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수집기간
2011.01.01 ~ 2021.06.30

분기

시도

양식 방법

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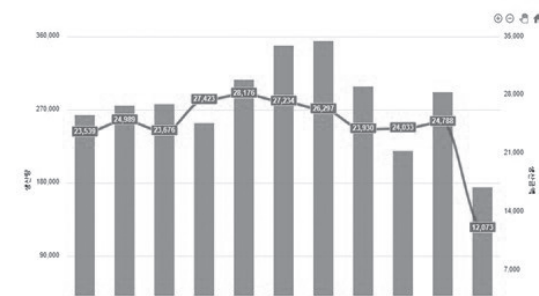
전체

제주도

전체

전체

검색



JRI 제주연구원

34

案例二. 济州数据枢纽

信息图 > 图表信息图

摄像头位置信息(地图)

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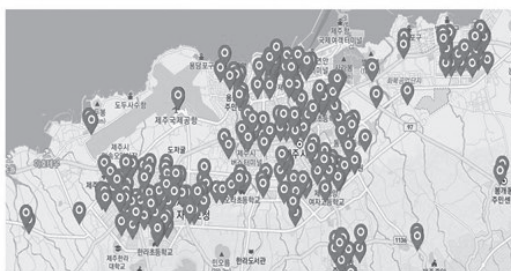
데이터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CCTV 위치 정보
- 2021.09.30 기준
- 출처: LOCALDATA

데이터 수집기간
2020.07.07 ~ 2021.01.06

설치 목적

전체

검색



按市、道养殖生产量和生产总额趋势(年度)

표 49

데이터 설명
- 시도별 양식 생산량 및 생산 금액 추이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수집기간
2011.01.01 ~ 2021.06.30

분기

시도

양식 방법

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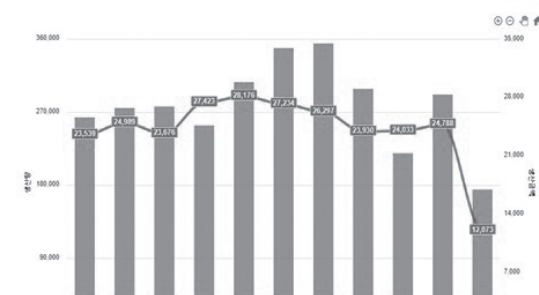
전체

제주도

전체

전체

검색



JRI 济州研究院

34

사례 3. 한국관광빅데이터랩

- 한국관광공사는 민간과 공공 영역의 다양한 관광분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오픈함(2021.2.17.)
-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의 민간구매 빅데이터와 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서비스를 무료 제공함
 - 민간데이터는 원천데이터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나 조건검색 결과는 다운로드 가능함
-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자 수, 관광객 이동 및 소비패턴 분석 등을 기초 지자체 별로 분석할 수 있어,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경영 활동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함
- 민간데이터 구입 비용으로 인해 그동안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였던 개인, 기업,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게 빅데이터 활용의 기회를 제공함
 - 그동안 관광객의 여행행태를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이용이 일부계층에만 제한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함

案例三. 韩国旅游大数据实验室

- 韩国观光公社成立“韩国旅游数据实验室”(2021年2月17日),是个可以分析民间和公共领域的多种旅游数据的平台。
- 韩国旅游数据实验室免费提供移动通信、信用卡、导航等民间购物大数据以及旅游统计、旅游实况调查等利用公共数据的分析服务。
 - 民间数据不能下载原始数据,但条件检索结果可以下载。
- 一直以来,只有按基础地方自治团体分别对各地区国内外到访人数、游客移动及消费行为进行分析,为建立旅游政策和旅游经营活动等提供重要的参考资料。
- 个人、企业、地方自治团体、大学、研究机构由于购买民间数据费用难以利用大数据,为它们提供利用大数据的机会
 - 一些人士利用大数据及时了解游客的旅游行为,这严重阻碍旅游产业的进一步发展。

사례 3. 한국관광빅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main/getMainForm.do>



36

案例三. 韩国旅游大数据实验室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main/getMainForm.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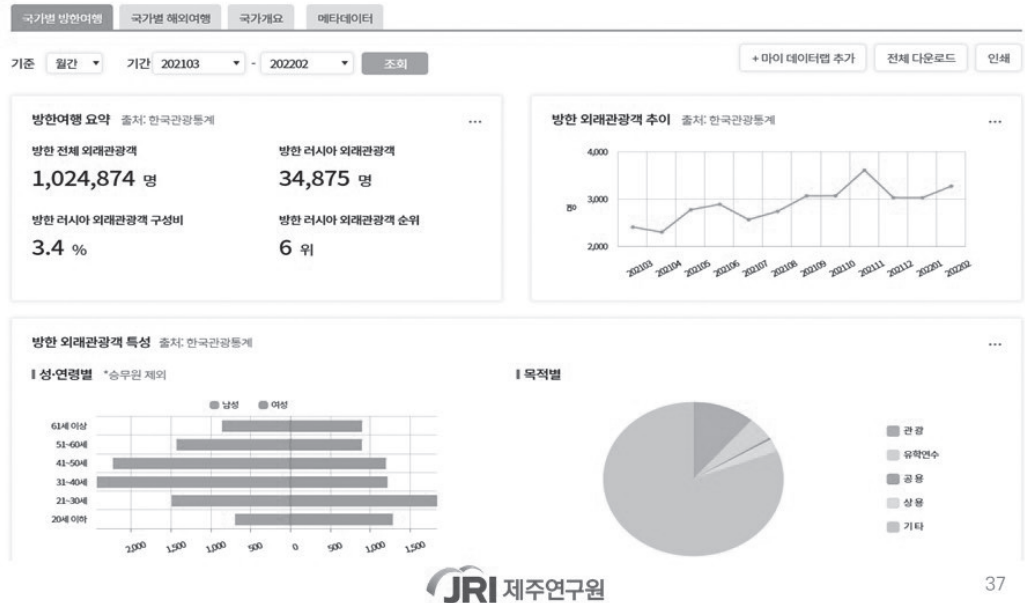


36

사례 3. 한국관광빅데이터랩

■ 국가별 데이터랩 > 국가별 대시보드 > 국가별 방한여행

러시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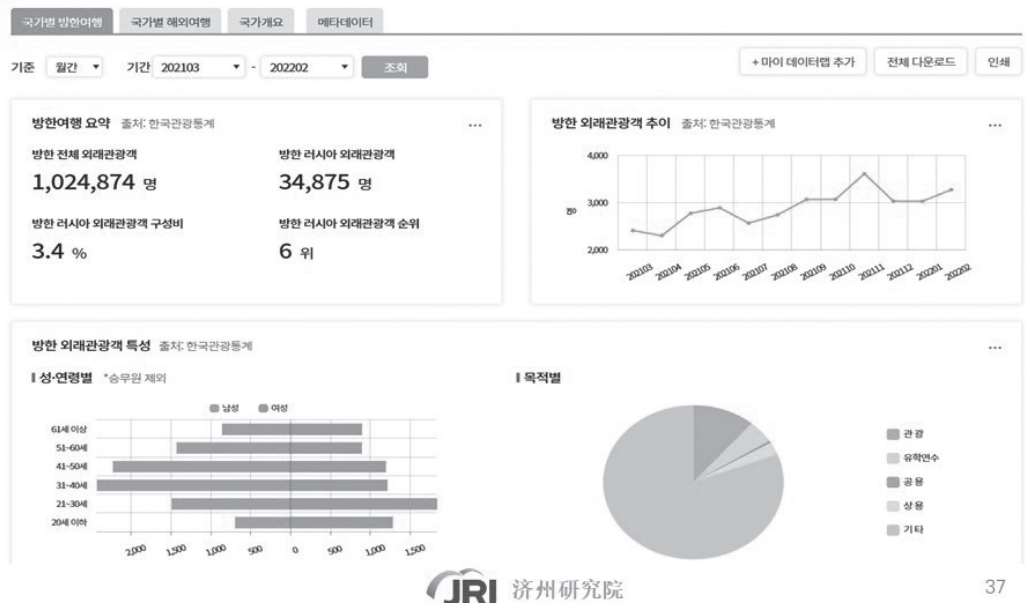


37

案例三. 韩国旅游大数据实验室

■ 按国家数据实验室> 按国家仪表板> 按国家赴韩旅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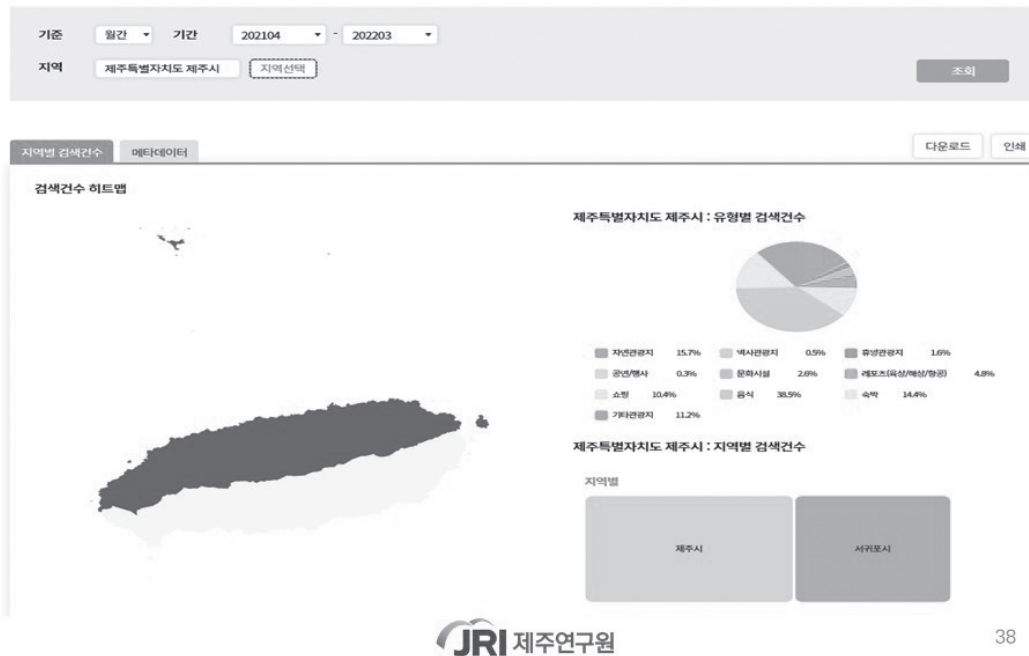
러시아 ▼



37

사례 3. 한국관광빅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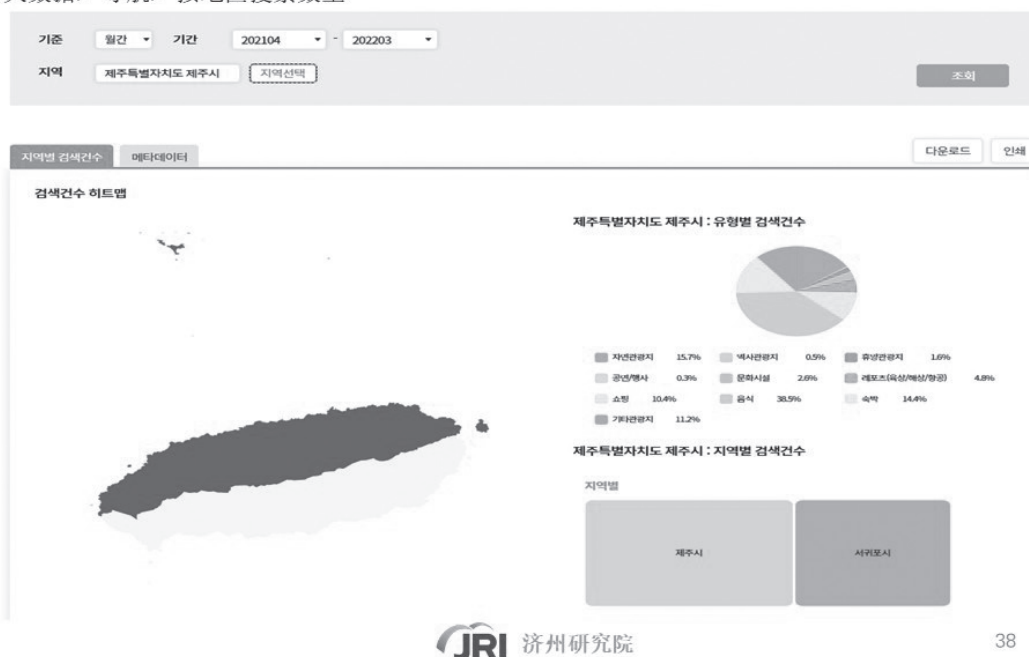
빅데이터 > 내비게이션 > 지역별 검색건수



38

案例三. 韩国旅游大数据实验室

大数据 > 导航 > 按地区搜索数量



38

Chater4.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Chater4.

利用大数据吸引中国游客方案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유치방안 1) 바이두, 위챗 등 중국 주요 포털과 SNS 등에서 제주 관광과 해외관광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사전 모니터링

- COVID19로 중국의 아웃바운드(Out-bound) 관광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선호 여행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
- COVID19와 사드 이전에 제주도는 여행비용과 거리 등에서 중국인의 첫 해외 관광지로 선호되는 지역이었음
- 제주여행에 대한 선호도, 희망 관광지, 음식, 쇼핑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준비태세를 확립

利用大数据吸引中国游客方案

(方案一) 在中国主要门户网站和社交媒体如百度、微信等，事前监测对济州旅游和出境旅游的搜索结果。

- 由于疫情，中国人出境旅游有限制，而有必要事前调查好疫情后最向往的旅游目的地。
- 在爆发疫情和萨德之前，以旅行经费和近距离等为由济州岛为中国人出境旅游首选目的地。
- 对中国人济州旅行的喜好度、想去的旅游景点、美食、购物等领域详细进行监测，提前做好准备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유치방안 2) 중국인 해외 관광 정상화 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주방문 중국인 개별 관광객 이동패턴과 소비패턴 분석

- 모바일 로밍(Roaming)데이터를 이용한 중국인 개별 관광객 주요 방문 코스 분석
-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 주요 소비항목 분석
- 매년 고정 정책과제로 수행하되, 월별 분석보고서를 제주도민과 중국의 주요 관광관련 기관에 제공
 - 이전에는 1회성, 이슈성으로만 분석됨

利用大数据吸引中国游客方案

(方案二) 在中国人出境旅游恢复正常后, 利用大数据对到访济州的中国人的自由行移动路线和消费行为进行个性化分析

- 利用手机漫游(Roaming)数据, 分析中国人自由行重点景区路线
- 利用信用卡大数据分析中国游客消费集中项目
- 作为定期政策课题每年执行, 每月还向济州岛居民和中国主要旅游相关机构提供分析报告。
 - 以往分析报告为一次性的, 只分析热点事件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유치방안 3) 중국 관련 관광통계 개발 및 유지

- 제주입도객 통계, 제주관광 수입 등의 기존 통계에서 중국인 통계를 별도로 구성 및 유지
 -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로 입도하여 타 지역으로 가거나, 타 지역에서 제주로 입도하는 관광객에 대한 통계가 필요함
 - 관광수입 추계는 중국인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음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기초 통계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조사하고 통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利用大数据吸引中国游客方案

(方案三) 开发和保持中国相关旅游统计

- 在济州入岛客统计和济州观光收入等现有统计上，单独梳理和保持中国游客统计
 - 还需要中国游客到访济州后离岛前往其他地区或从其他地区到访济州的游客统计。
 - 在观光收入估算中不统计中国游客数据
- 为了吸引中国游客，须发掘基础统计项目，并研究对此进行调查和统计的方案。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유치방안 4) 지역 내 빅데이터 활용자원 중국어화 및 중국인 접근성 확대

-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지도, 제주데이터 허브넷에 대한 중국어 버전 페이지를 서비스
-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지도는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로밍(Roaming)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혼잡도도 제공
-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지도 등 지역내 빅데이터 자원에 대한 중국 홍보

利用大数据吸引中国游客方案

(方案四) 将地区内大数据利用资源翻译成中文和为中国人提供服务。

- 在实时景点拥堵图和济州数据中心网站提供中文版服务
- 实时景点拥堵图只向国内游客提供信息，但利用漫游(Roaming)数据向中国游客提供拥堵图
- 地区内大数据资源如实时景点拥堵图等在中国进行宣传和推广

빅데이터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유치방안 5) 『탐나는 전』과 『제주안심코드』 기능을 통합한 중국어 버전 모바일 탐나는 전 앱 개발 및 사용 권장

-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을 중국 관광객도 충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버전의 앱을 개발
 - 온라인 외에도 공항과 항만에서 『탐나는 전』 충전 시스템을 구축
 - 잔금은 귀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현금하되, 일정한도까지 사용액만큼 인센티브 지급
- 『탐나는 전』 앱에 『제주안심코드』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향후 방역과 관련되어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치
 - 코로나19 유사 감염병 유행 사례 재발 대비
 - 무사증 이용 입도객에 대한 동선 파악(제주 안심코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마다 위치정보를 수집)

利用大数据吸引中国游客方案

(方案五) 整合“耽罗是钱”与“济州安心”功能开发出中文版本的“耽罗是钱”移动端，并普及推广。

- 为了让中国游客充值使用地区货币“耽罗是钱”，开发中文版的应用程序
 - 除了在网上外，在机场和港口也构建“耽罗是钱”充值系统。
 - 回国时在机场和港口可以退还余款，还在一定限度内按使用额发放奖励
- 在“耽罗是钱”应用程序中追加搭载“济州安心二维码”功能，追溯游客动线，供防疫当局参考。
 - 防止类似于新冠肺炎的传染病再次发生
 - 了解免签到访济州游客路线（即使不使用济州安心二维码，也按规定时间收集位置信息）

토론세션

토론 1

조태숙 위원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국내외여행업위원회]

토론 1

1.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2. 한·중은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고, 2020년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 나라간 정치, 외교관계는 <전략적 동반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한국과 미국 간 포괄적 동맹관계에 비교할 때 협소하고 제한적인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는 경제적 상호 이해관계가 기반된다.
이에 두 나라는 각국의 정치나 경제 수준 등 상황 변동에 따라 극심한 변화를 겪는다.
4. 제주는 관광특수로 2010년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1만여 명의 중국 회사 직원이 방문한 답례로 ‘바오젠’ 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보복 문제와 RCEP 적자, 코로나19 등 문제로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심화되고 있으며 제주는 코로나로 관광시장에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후 바오젠 거리는 누웨마루로 이름을 바꿨고 투자이민제도 투자금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
4. 제주가 대중국 교류를 증진하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대상국 다변화, 개인-가족관광 대비, 한류 회복, 자료관 설립 등 대비가 필요하다.
5. 중국 <단체관광>은 제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국적기를 타고 중국자본 호텔과 버스,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6. <개인-고가 관광>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가족 관광은 개별 예약을 통해 개인 계획에 따라 제주 사람이 운영하는 곳을 많이 가게 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단체관광보다 개인 관광이 늘어야 하며, 관광을 단체-저가 → 개인-고가 관광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주도 중국관광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순 관광자료와 정보에 국한돼선 안 되며, 관광은 독립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자료관을 설립하는 등 문화관이 설립이 필요하다.

8.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증진을 위해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제주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제주를 세계화>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뀌는 단기계획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과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앞으로 더 발전하는 <세계속의 제주>가 될 수 있다.

토론세션

토론 2

Zheng Lin(郑琳) 상무부회장
[중국여행사협회 인바운드관광분회 (ZOOM)]

与时俱进，增进了解， 促进中韩两国间旅游文化交流合作

今年是中韩建交30周年，中韩两国也是两国人民心目中的最受欢迎的旅游目的地之一。作为一名中国入境旅游从业者，就如何促进双边文化旅游交流合作，我从入境旅游的角度谈一点个人见解。

- 1、近几年以来，中国文化和旅游市场发生了巨大的变化，提质升级的速度很快，需要从产品供给侧为韩国市场提供更加能够满足韩国消费者需求的产品。
- 2、文化驱动。中国目前已经有56处世界遗产已达56处，位居世界前列，文化遗产已经成为全世界人民来华旅游的吸引力。近几年，随着三星堆等特大考古遗迹的不断发掘，中华文明的华丽多姿更将是一大看点。
- 3、与时俱进，体验城市生活，感受城市的温度和生机，也是今后文化传播和旅游发展的方向之一。让外国人感受中国城市的温度、城市的未来、近距离体验我们的文化，体验中国人的生活方式，是我们入境旅游的新课题，新目标。
- 4、增进了解，加强宣传推广。中国每天都在发生翻天覆地的变化，文化文明的宽度和旅游目的地的纵深和广度都不可同日而语。美好需要传播，我们需要在韩国市场加强宣传推广，增进韩国人民对中国方方面面的了解，了解中国、爱上中国、前往中国。

토론세션

토론 3

김 성 수 대표이사

[Korea China Culture Travel]

中韩建交30 周年，旅游交流新合作

一，简单回顾中韩旅游交往史

1. 韩国游客访中人次变化

中韩旅游真正的开始时间是1989 年，当时韩国游客以访问交流为目的通过中方相关部门的邀请方式，经香港或日本等第三国来华访问旅游，当时每年来华访问韩国人数不到五千人（那年本人正好大学毕业去了旅行社工作做外联和导游工作）。1992 年中韩正式建交以后，建交当年来华韩国游客就激增至11 万人次，最初大交通手段主要以威海海运和天津-汉城之间的少量航班，不到三年时间来华访问人数增加至20 多倍。除了1997 年金融危机·1998 年洪水·2003 年非典·2008 年国际金融危机，韩国来华游客有所下降外其它年份均呈现快速上升趋势，建交近20 周年的2011 年来华韩国游客已经达到418 万人，增加了近38 倍之多。（到2018 年韩国来华419 万人次达到历史巅峰）

2. 中国游客访韩人次变化

1992 年韩国接待中国访客人数为8.7 万人次，随着中国经济的迅速发展以及两国对旅游政策的逐渐放开，到了建交20 周年的2012 年达到了374.5 万人次，二十年间增加至43 倍。到了2019年韩国接待中国游客602 万人次，近三十年间增加至69 倍，达到了历史巅峰。综上所述可见，中韩旅游业发展潜力和发展空间之大是非常惊人的，给从事两国旅游业界人士无限想象空间，也给双方业内人士对自身企业发展定位无限思考空间。

二，在线旅游（OTA）模式给传统旅行社带来的危机

1. 由于数据化技术的发展，传统旅游模式受到了前所未有的冲击，传统旅游模式依靠信息差，在组团社与接团社以及游客之间产生的信息不对等，以价格差为主要盈利模式在运作，但由于数据化时代的到来，网络技术的发展对各种信息的透明化程度空前放大，迫使传统旅游的盈利模式逐渐转化为收取服务费为主要盈利模式，这样一来企业利润空间缩小，要么做大做强，要么就变成小作坊企业，把传统旅游模式逼到了墙角，逼到不转换思考将被淘汰的危险境界。在线旅游模式的产生和发展给旅游行业注入了新的血液，其发展迅猛，规模空前壮大，同时也冲击了很多传统旅行社的饭碗，例如携程机加酒，客路（K-LOOK）碎片化产品销售等，抢走了不少传统旅行社赖以生存的盈利空间。

三, 传统旅行社新思路

1. 在线旅游模式虽然有其强大的内在优势，但也有其弱势之处，它在人性化服务，个性化定制服务产品设计等领域的开发推广就有局限性，例如专业对口交流，会奖旅游，文化体育交流，研学旅游等。所以传统旅行社要把目光放到这些领域，术有专攻方能长足进步和发展。
2. 传统旅行社服务要素里，翻译导游服务是旅行社最具竞争力的可控资源，也是最能体现人性化服务和个性化服务的抓手，是否能在这里思考出变量出来呢？

四, 给济州岛旅游业的几点建议

1. 济州岛是中国人非常喜欢的海岛游旅游目的地之一，距离近，海空交通便利，酒店，会议中心，娱乐项目等旅游设施完善，这些无疑对招徕中国游客提供极大的诱惑。后疫情时代中国自由行游客将显著增长，能为中国自驾游客人提供更多的便利措施，例如驾照的相关规定，自驾车的中文导航等。
2. 济州岛的旅游资源非常丰富，个性化碎片化产品比较多，是否可以建立相关搜索网站，按产品分类搜索，这样既可帮助当地旅游产品开发投资者以信心，也给有客提供更多选择权。
3. 希望多建设海洋娱乐项目，例如冲浪，滑水，游艇，海钓等。
4. 希望专门针对游客建立法律咨询团队，游客增多相关纠纷也会多，专业咨询团队长期积累经验，对能够及时解决纠纷会有帮助。

토론세션

토론 4

김창효 실장

[제주관광협회 마케팅실]

한·중 우호교류 증진과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 제주지역 중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

제주 지역경제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은 수려의 양 바퀴처럼 국내·외 관광객의 균형있는 입도(유치)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있다. 중국 한한령,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6년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306만명으로 제주관광에 있어 제1의 해외시장(전체외국인 관광객의 약 85%)이었으며, 이때 크루즈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은 120.9만명(중국인 관광객의 39.5%)에 달했었다.

되짚어 보면, 당시 제주관광은 적정수용력 등이 논의되면서도 내·외국인 방문객 기준 시장구성은 77% : 23%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해당 영업활동을 통하여 5조 5천억원(명목/당해년 지역 총생산액 17조)의 조수익(내국인 3.605조 65.6%/외국인 1.888조 34.4%)을 달성했다. 올해, 제주 입도 관광객은 국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1500만명 내외로 예상되어지고 있으나, 9월말 현재 내국인 시장 구조가 99.5%를 점유(외국인 4.6만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 몇년간 제주 관광산업 생태계는 조수익 기준 약 70%의 국내시장과 약 30%의 해외시장에 의하여 그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접어들면서 해외시장은 폐쇄되었고 관련 업계는 휴·폐업(자본철수) 상황에 놓이면서 도내 관광산업은 국내 수요 중심의 관광지로 재편되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고 국제적 관광교류가 다시 열리는 시점에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기존의 관광산업 생태계 부활과 함께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 관광시장에서의 관광객 유치가 절실하며, 그 중심에는 해외 제 1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제주방문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가 적절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양적인 관광객 유치에 치중했던 지난 과거의 사례를 교훈삼아 아직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양적, 질적(고부가가치)성장 실현을 위해 우선 시급한 몇가지 보완사항을 현장 중심의 관련업계 관점에서 점검·제안코자 한다.

우선은 전염병 등에 대한 방역시스템의 견고한 구축과 항시 운영이다. 제아무리 좋은 관광콘텐츠와 양질의 서비스체계를 갖췄다 하더라도 방역의 벽이 무너지면 관광산업은 끝이다. 지난 2~3년간의 학습효과를 토대로 우리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인수 공통의 방역시스템 고도화를 더욱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

둘째는 도내 관광산업 현장에서의 각종 현안사항의 개선이다. 숙박, 가이드, 외식업 등 대면서비스 비중이 높은 관광업종의 특성상 인력(특히 중국어 가능) 부족은 대 고객서비스질 악화를 의미한다. 단기적 외국인 고용(비자) 완화 및 중장기적 인력 수급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관광산업 부분에서도 외국 인력의 쿼터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무자격, 무등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화(검경, 세무서 등)된 합동 단속체계 가동과 우수업체 등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제주관광 선진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중화권 자본(기념품, 호텔, 식당, 전세버스 사업체) 간 거래를 지양하고 도민 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구축도 절실하다. 제주형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제도나 중국 내 도내 여행사 중국 진출(외자여행사, 한·중합작 회사) 지원책 마련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직모객 시스템 구축 등도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중 우호교류 증진방안의 일환으로 도내 자생단체의 대 중국 교류 확충과 제주발 중국행 항공노선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협회는 중국 북경시여유행업협회 등 중국내 15개 관광단체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방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지역)간의 민간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직항노선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발 제주 항공수요와 제주발 중국행 수요 편차 축소를 위한 전략적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륙을 연계(방한) 제주 무비자 환승관광객 지원제도 재개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무부의 사전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제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양날의 검”이다. 다행히도 제주도와 우리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중국 등 제주 무사증 국가에 대한 도입은 유보되었다. 해외 잠재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ETA와 VISA의 구분이 모호하다. 둘 다 자유왕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관광 측면에서 보면 제한적 요소이다.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서복”과 “서귀포” 지명의 유래를 되새겨보며 제주와 중국간의 관광교류 활성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토론세션

토론 5

Ma Fei(马菲) 수석기자

[중국인민일보 한국지국]

发挥媒体作用 筑牢民意基础

大家好，我是人民日报韩国分社记者马菲。

这是我第二次来韩国工作，两次在韩国工作的时间加起来共有8年。在韩国期间，我经历了四任韩国总统，见证了中韩建交20周年、25周年和30周年。如果让我用一个词来形容在韩国的工作经历，我想最贴切的词就是“感动”。

2020年初，中国打响新冠肺炎疫情防控阻击战，一位韩国教授联系我说，他在社交媒体账号上号召大家支持中国、向中国捐款，有许多人积极响应，他希望我能帮忙把捐款转交给中方。一位学习中文的韩国大学生告诉我，为了让韩国民众了解疫情的真实情况，她将有关中国的新闻视频用韩语配音后，发布在自己的社交媒体账号上。她希望尽自己所能做一些小事，为中韩友好做出贡献。在韩国工作期间，令我感动的故事还有许多。在我看来，中韩民众之间整体是亲近和友好的。

然而，社交媒体的交互性和社会性也成为人们发泄情绪的渠道，为谣言的滋生提供了空间。甚至有一些人故意利用网络去煽动民族主义情绪、制造对立，在一定程度上影响了中韩民众之间的友好感情，尤其是影响了两国年轻一代对彼此的看法。这对中韩双方都是十分不利的，也是值得我们警惕的。

近期，就有多个韩国媒体报道称“韩国企业纷纷离开中国”，互联网舆论马上跟风出现了许多“脱中国”的声音。但实际上，少数韩国企业在华经营遇到一些困难，主要是受全球经济增长放缓、生产成本上升、市场竞争激烈的影响，并不是中国的投资环境不好。今年1至7月，韩国实际对华投资增长44.5%，增长率位居各国之首。这充分说明韩国企业对中国市场和中国经济充满信心。然而，个别媒体报道有时倾向于迎合更夺眼球“脱离中国”论调，真实的情况却很少被关注。

媒体应该成为两国人民友好的桥梁和纽带。两国建交30年来的历史已经充分证明，中韩关系的本质是互利共赢，两国关系发展符合两国和两国人民的根本利益。新形势下，两国媒体应准确把握双边关系发展的主流和方向，担负起促进中韩友好发展的责任使命，聚焦共同关切，全面客观报道，传播理性声音，不断为中韩友好合作增砖添瓦。

2018年，我曾到济州采访过韩国最大的盆栽艺术园——“思索之苑”的苑长成范永。“思索之苑”里林立着各种雕塑、悬挂着多幅书法作品，多数都是中国朋友赠送给成范永的礼物，这里也成了中韩民间友好的象征。成范永告诉我说，他的中国朋友比韩国朋友还要多。我对成范永的采访报道刊发在人民日报上，获得了很多中国读者的点赞，他们也想要到这个艺术园来走一走看一看。我希望未来两国媒体能够更多挖掘两国人民友好往来的好故事，帮助消除彼此隔阂与分歧，增进互信。

多年来，中韩双方也很重视媒体交流，建立了各种新闻媒体交流机制。双方每年都举办由中韩主流媒体参加的“中韩媒体高层对话”。作为中国最具有影响力的报纸，人民日报也积极开展各项活

动，包括一带一路媒体合作论坛、东盟与中日韩（10+3）媒体合作研讨会等，这些活动每年都会邀请韩国媒体参加，人民日报也积极的将新时代中国故事推送介韩国媒体和民众，帮助他们更好的了解当今中国，未来人民日报也希望能够跟更多的韩国媒体进行深入的交流与合作，共同商讨如何在增进两国人民间的相互信任和友谊等方面发挥更大作用。

济州岛离中国很近，是中国游客最喜爱的海外旅游地之一。随着中国国民收入的不断提高，中国游客未来到济州岛旅游会从过去的团队游，向度假游、购物游转变。济州道政府积极面向中国游客进行相关旅游宣传，推出了大量方便中国游客的措施。随着疫情的逐渐缓和以及中国民众海外旅游需求不断提升，相信未来到访济州的中国游客一定会不断增多，两国交往也会不断加深，双方友好的前景将更加光明。

토론세션

토론 6

김 규 찬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중 수교 30주년, 함께하는 한류를 위한 제언

1. 한류의 원조,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일컫는 ‘한류(韓流)’라는 용어는 1999년 중국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드라마 〈질투〉가 CCTV를 통해 중국에서 첫 선을 보였다. 1997년에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CCTV에서 방영되었는데, 시청률 4.3%로 중국 방영 해외 드라마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남겼다. 1998년 가수 H.O.T와 클론의 음반이 중국에서 출시되었고, 1999년 클론, 2000년 H.O.T, 안재욱의 콘서트가 베이징에서 열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2000년 이후 양국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한국 걸그룹 음악의 인기가 높아지고, 대장금 같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높아졌다. 중국 시장 내 한국 소비재가 각광받고, 한국을 찾는 중국 유학생이 크게 늘어났다. 2005년 70만 명 수준이던 방한 중국 본토 관광객이 2016년 800만 명을 상회한 것은 이러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 내 한류스타와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한중 수교 20주년이던 2012년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 인기는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냐오슈(鸟叔, 새아저씨)’는 2013년 BTV 춘완(春晚)에 출연하여 린즈링(林志玲)과 말춤을 추었다. 2014년 춘완(春晚)에는 드라마 〈상속자들〉의 이민호가 등장하였다. 같은 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얻으며 중국 전역에서 ‘치맥’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왕치산 서기가 한국드라마를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는 중국 자본이 참여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2. 한중 수교 30주년, 양국이 함께하는 한류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다시 원점에 섰다. 여러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 지난 1993년 드라마 〈질투〉 이후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은 철저히 판매자였고 중국은 구매자였다. 중국은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했고 한국은 마침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와 2016년 〈태양의 후예〉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와 협력이 절정에 이른 결과물이었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한국의 문화산업과 한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중국 측 의도와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 중국은 한국 문화산업의 든든한 해외시장이었다. 한국이 수출과 무역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지만 한류 이전에는 드라마와 같은 문화콘텐츠를 해외에 팔아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한국은 중국에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중국은 오랜 기간 한국의 충실한 고객이 되어 주었다. 일본과 유럽도 좋은 시장이지만 기간이 나 규모 면에서 중국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 동안은 중국은 투자자이면서 한류 콘텐츠 생산자의 역할까지 일부 담당하였다.

둘째, 중국은 한국 문화산업의 내부 혁신과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태양의 후예> 이후로 촬영 당일 아침 대본이 나오던 나쁜 제작 관행이 일거에 개선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중국 당국의 심의를 통과하고 양국 동시상영을 위해서는 100% 사전제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 콘텐츠 기업에 대한 중국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에 처해있던 한국 문화산업을 지지하는 중요 자원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셋째, 중국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평판을 높여주었다. 넷플릭스는 최근 수 년간 한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오징어게임> 같은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그 바탕에는 중국 시장에서 확인한 한국의 제작 역량이 있었다. 한국이 중국 콘텐츠시장에서 이룬 성공을 보고, 넷플릭스는 한국을 아시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셈이다.

앞으로 30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예전처럼 중국이 한국 콘텐츠의 일방적 구매자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다. 한국 문화산업이 성숙한 만큼 중국 또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다. OTT 서비스를 통해 한국 대중에게 선보인 최근 중국 드라마의 수준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인력과 기술 수준이 대등해진 만큼 양국이 함께하는 한류로 진화해 나갈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이 중국을 좀 더 알아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최근 한국은 중국이 만든 문화콘텐츠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1980~90년대 홍콩 영화 열풍 이후로 한국에서 중국 영화는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한국인의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은 중국 영화의 흔적은 <색,계>와 <적벽대전>이다. 벌써 15년 전 영화들이다. 중국 가요는 등려군 이후로 알려진 게 거의 없고, 드라마 또한 <판관 포청천> 이후로는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최근 수년간 달라진 중국 콘텐츠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토론세션

토론 7

김 일 기 책임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중협력

1. 한중 수교 30주년 회고

-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중국 간 우호 교류 및 관광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포럼에 초대해 주신 제주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림
- 제가 오늘 맡은 토론 내용은 한중협력 분야임. 지난 30년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간단한 소회(所懷)를 말씀드리고자 함.
-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 동안 경제,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음. 상호 민감한 분야는 잠시 뒤로 미룬 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방식을 통해 오늘에 이룸
 - 한중 교역액은 작년에 약 3,000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2년 63.7억 달러에 비해 47배가 성장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1위,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 됨
 - 인적 교류는 수교 당시인 1992년에 약 13만 명이었으나, 2014년에 1,000만을 넘어섬
-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한중관계는 쉽지 않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임
 -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안보 위협의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한중관계에 도전요인으로 작용
 - 이와 함께 최근 양국 국민 사이에는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갈등, 사드 문제와 미세먼지 등으로 상호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2. 한중관계의 도전요인

- 한중관계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군사·안보 분야를 들 수 있음. 그동안 한중 양국은 군사·안보 분야는 잠시 뒤로 미루어 둔 채 경제와 문화 그리고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증진해 왔음
 - 그러나 최근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투영되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무력 시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인식의 차이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간격이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국민 간 호감도와 신뢰 약화로 연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위험성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서고 있음
- 이외에도 한미동맹의 공고화 과정에서 사드 및 '3불'에 관한 입장, 한국의 쿼드(QUAD) 참여 여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 등이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한중 양국은 보완적 분업구조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 해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인해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경쟁이 부각되고 있음. 이는 한중 경제협력 분야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등장했음을 의미함
 - 미국은 가치와 체제에 기반한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확립을 통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를 '자유 진영 국가 vs. 중국'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한중 수교 당시에는 양국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치와 체제의 차이가 최근에는 양국 관계에서 점차 도전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문화적 측면에서는 최근 한중 사이에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논쟁이 증가하면서 양국 국민 사이에서 상호 호감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여러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3. 한중협력의 방향

- 한중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음
 - 한중 양국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으로 현재 직면한 현안들을 잘 관리하면서 경제, 문화, 관광,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 그동안 양국은 양자택일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점을 모색해 왔음. 앞으로도 양국 모두가 서로의 핵심 이익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관광 협력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공통 접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한중 양국이 구동존이(求同存異)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교류와 협력을 추구한다면 양국 관계의 미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음

토론세션

토론 8

김재구 부장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례와 제언

- 전주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거점도시 전주

국가간 우호 협력에 있어 상호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교류 확대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 한국 정부에서도 이에 맞추어 2020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부산, 안동, 강릉, 전주, 목포를 선정한 바 있음. 관광거점도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해당 지역을 한국의 대표 관광도시로 만드는 사업임.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에 있어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전통문화 브랜드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전주시는 한옥마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 브랜드가 가장 확고한 도시로 내국인 관광이 활성화된 한옥마을의 관광성을 지역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전주시의 핵심 사업으로는 ‘한옥마을 리브랜딩 사업’으로 한옥마을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국제수준의 관광 인프라 및 관광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히,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리브랜딩하여 새로운 가치부여를 통한 재도약과 지속가능성 확보 프로젝트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 관광의 외연을 공간 및 산업적 연계성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고자 함.

전주시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를 통해 자생적인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관광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관광 품질관리와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주 글로벌 메이트’라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홍보단 활동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주를 알리기 위해 문화, 예술, 음식 등 전주의 매력적인 모습과 전주의 핫플레이스, 숨겨진 명소 등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SNS로 홍보하고 있음. 또한 지역관광의 문제점과 대안을 시민 스스로 만들어 해결하 나가기 위한 ‘한옥마을 비빔공동체’, ‘35개 마을술사’ 등 시민 중심의 관광거점도시 관광협의체와 관광사업체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주관광발전협의회’ 등 자생적 시민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음.

전주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조사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명 이상 찾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 2016년 1064만8077명, 2017년 1109만 7033명, 2018년 1053만9700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음(이동통신 빅데이터 분석 결과). 특히 코로나 이전이긴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9만5809명이었던 한옥마을 관광객이 2018년에 13만6662명, 2019년 1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주시가 지난 2022년 4월과 5월 2개월 동안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주시민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 314명과 내국인 관광객 321명을 대상으로 전주여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전주를 방문한 연령층은 20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학생의 비중이 높았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외국인은 시외·고속버스, 기차 등 66%가 대중교통이었고, 내국인은 63.2%가 자가용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외국인 응답자 중 전주를 처음 방문했다고 한 외국인은 약 80%로 나타났지만, 과거 전주여행을 경험한 외국인의 평균 방문율이 4.3회로 나타나 전주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내국인의 경우에는 전주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31.8%로 나타났으며, 재방문율은 4.6회로 외국인 관광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또한, 전주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외국인은 71.7%, 내국인은 64.2%로 집계됐으며, 숙박 장소는 외국인의 경우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숙박을, 내국인의 경우 호텔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주관광 등 방문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외국인의 경우 96.2%, 내국인 관광객은 81.3%였고, 응답자의 83%(외국인 80.9%·내국인 85.7%)가 재방문 의사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그 이유로 볼거리와 음식을 꼽았음.

이에 앞서 2021년 외국인 관광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관광객 연령은 대부분 20~30대였으며, 국적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40개국으로 다양하게 분포하였음. 전주를 관광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전통문화 체험을 하고 싶어서'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관광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91%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86.5%는 '3년 내 전주를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음. 이와 함께 전주에서 인상적인 부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자만 벽화마을, 한옥 숙박, 한복체험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음.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 사례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제언

한중 수교 30년, 관광교류의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에 있어 전주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크게 3가지의 첨언을 하고자 함. 첫째로 그 동안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브랜드에 대한 재도약이 필요함. 전주시는 한옥마을

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브랜드를 통하여 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발돋움하였으나, 글로벌 관광도시를 목표로 한옥마을의 리브랜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 역시 보유한 관광자원과 관광 이미지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트랜드에 맞추어 리브랜딩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

둘째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마련해야 함. 포스트 코로나의 글로벌 관광트랜드 변화에 대하여 각 국가마다 다르게 접근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참고하여 관광객 유치에 위한 숙박, 먹거리, 안전 등의 준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단순히 관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류 협력의 강화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가간의 보편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생활방식과 문화 등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만 할 것임.

토론세션

토론 9

고 경 민 국장

[제주국제평화센터,지방협력]

‘관광을 통한 평화’의 창출과 확산: 제주-중국의 미래지향적 관광협력 방향

왜 ‘관광을 통한 평화’인가?

- UN은 1967년을 ‘국제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관광, 평화로 가는 여권”(Tourism, Passport to Peace)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관광을 통한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국제교류 증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관광을 “평화의 생명력”이라고 했던 루이스 다모레(Louis D’Amore)에 의해 1986년 창립된 ‘관광을 통한 국제평화 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Peace through Tourism, IIPT)는 2000년 11월 암만 선언(Amman Declaration)에서 “평화는 여행과 관광, 그리고 인간의 성장과 발전의 모든 측면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사실상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평화 산업으로서 육성되고 있다.
- 그런데 관광은 전쟁, 폭력, 테러, 갈등 같은 비평화(peacelessness) 상황에 매우 취약한 산업이다. 관광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관광은 평화의 수혜자일 뿐 능동적 역할을 통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한·중수교 30주년 회고

- 한·중은 1992년 수교 당시부터 양국 사이에 가치와 체제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양자관계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특히 경제/통상 영역에서는 2021년 한·중 간 무역액은 약 3천억 달러로 수교 당시인 1992년의 63.7억 달러에서 약 47배 성장을 이루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1992년에 약 13만 명이었던 한·중 간 인적교류는 2014년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수교 이후 정치/외교,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일정한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 및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한·중 교류협력은 괄목 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 그러나 2002년부터 불거진 ‘동북공정’ 및 2016년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 이후 ‘한한령(限韓令)’을 포함한 중국의 직·간접적인 제재 조치에 이어 최근 한·중 네티즌 사이의 한복 및 김치 논쟁 등으로 인해 한·중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한·중관계의 부침은 관광과 같은 인적교류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 2016년의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으

로 인해 2016년 1,280만 명이었던 한·중 인적교류는 2017년 802.4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에 다시 1,037만 명으로 회복되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약 118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 들었다. 특히 제주에게 사드 배치 현안과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예외로 한다면, 한·중 갈등이라는 비평화 상황은 제주의 중국 관광객 유치에 치명타를 안겨주었다.

어떻게 ‘관광을 통한 평화’를 이룰 것인가?

- 논의의 실마리는 한·중관계를 국가 차원의 외교관계를 넘어 지자체, 즉 도시 차원의 외교관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도시외교’(city diplomacy)는 국가 외교의 단위인 주권국가에 상응하는 행위자로 도시를 상정하는데, 이는 도시의 독립성과 함께 비교적 자유롭고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도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도시외교가 요청되는 것은, 도시가 전통적인 우호교류의 수준을 넘어 통상교류나 협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외교를 넘어서 공공외교나 통상외교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도시외교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장기적 시각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2021년 기준으로, 국내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은 중국과의 교류가 668건으로 전체 교류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도 전체 자매·우호도시 39곳 중 43.6%에 해당하는 17개 도시가 중국의 도시들이다. 요컨대, 국내 지자체와 제주는 중국과의 도시외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국가 외교의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도시외교를 추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최근의 세계 정세는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팽배한 상태이며, 한·중간 외교관계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이러한 구조적 틀을 넘어 어떻게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라고 할 것이다. 도시간 교류협력은 하위 정치(low politics) 영역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 중심에 인적 교류와 같은 관광협력이 있다. 관광은 양국 도시간 상호 교류 증진과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 한·중 30주년에 즈음해서 관광교류를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간 우호와 협력에 기반하여 관광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중 양국 도시들이 능동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민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한·중 양국 도시들이 어떻게 국가외교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도시외교를 실현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시사점

- 관광은 비즈니스, 오락, 또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이동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하지 않게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주고, 갈등을 희석하며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관광을 통한 평화’의 한 사례로 1980~90년대 관광을 통한 중국과 대만의 관계 개선이다. 중국·대만의 관광교류 활성화로 1993년 양국의 준공식(semi-official) 조직의 지도자들 간의 최초의 고위 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관광을 통한 양국 정부 간 화해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개성관광과 금강산 관광이 유사한 사례로 논의되기도 했다.

- 문제제기로 돌아가서, 관광이 전쟁, 폭력, 테러, 갈등 같은 비평화 상황에 매우 취약한 산업인 만큼, 관광을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광은 평화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도시의 능동적인 주체적 역할을 통해 관광을 통해 평화의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제주-중국의 미래지향적 관광협력을 찾는 방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토론세션

토론 10

김용현 국장

[제민일보 편집국장]

포스트코로나 대비 시안시 등 중국 서부도시 관광시장 공략해야

시안시와 충칭시 등 중국 서부지역 거점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주도 역시 관광시장 공략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연구원 중국연구센터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이전부터 중국 서부권역 주요 도시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등 국가급 지역발전 전략에 힘입어 충칭시, 청두시, 시안시 등 서부권역 도시들이 천만을 넘거나 육박하는 도시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960만명인 신시성 시안시는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고향으로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설립되는 등 IT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진출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인도 코로나19이전에 시안시를 다녀왔는데 삼성전자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친밀감도 있고, 한국관련 인프라도 잘 구축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인 2020년 이전부터 진에어는 현재 제주-시안시 직항노선을 전세편으로 운항했습니다. 중간에 일시중단됐다가 재개하기도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장기간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는 현재 제주기점 직항노선은 진에어가 주2회 운항하는 시안시가 유일할 정도로 중국내 도시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됐습니다. 진에어는 물류 및 관광시장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주 직항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칭시 역시 중국 내륙 유일의 직할시(인구 1000만 이상 기준)이며 국제전자 상거래시범 지역이자 서비스무

역혁신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도시인구와 규모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 서부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칭과 청두·시안시가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중국 직항항공노선은 시안시로 현 상황에서는 제주도가 중국 서부내륙지역 도시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 번 연임이 결정되면서 제로코로나로 불리는 고강도 코로나19방역 조치에 대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상당기간 방역통제로 해외여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내부 여건 등으로 제로코로나를 계속 유지할 수 없기에 멀지 않은 시간에 방역완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도 역시 여기에 맞춰 중국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하며 지금은 직항노선이 운항중인 시안시가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북경과 상하이, 홍콩, 항저우, 광저우 등 수도와 동부해안 거점도시와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반면 중국내륙 서부지역과의 자매·우호·결연 등 지방외교 토대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중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급격히 성장하는 서부지역 거점도시를 중점으로 관광객 유치, 경제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서부권역 중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제주와 직항선이 연결된 시안시와 우선 파트너십을 체결해 서부내륙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해야 합니다.

토론세션

토론 11

이 중 화 책임연구원
[제주연구원]

한중수교 30주년, 신(新)시대 교류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협력방안 모색 및 추진되어야: 제주신항만, RCEP, 지방외교

한중수교 30주년을 돌아보며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다양한 영역으로 심층적으로 확대 및 발전되어 왔습니다.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1992년 우호관계,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2013년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17년 12월 실질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등과 같이 교류협력의 방향과 가치가 진화하여 왔습니다.

2021년 한중 교역은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992년 수교 당시 대비 약 47배 증가하여 3,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인적교류 역시 8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한중 양국의 협력모델은 상호보완적 기반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산업협력 중 경쟁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중미 전략경쟁 심화, 북핵 문제, 펜더믹 이후 국제환경 및 통상환경 변화,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적인 문제들, 한중 양국간 역사문화 논쟁 지속발생, 사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양국 국민 간 상호 호감도 극감 등 내부적인 문제들 역시 고려 및 해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관광협력 방안 추진을 위한 제언

한중 관광협력은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사항 중 지역·도시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완공에 따른 한중 관광협력계획의 협의 및 수립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제주 신항만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주 유세에서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을 건설해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 맞는 항만 물류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적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현재 제주신항만 개발산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제주 신항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일대일로 해상실크로드 노선 연계 등을 통해 관광협력이 더욱 증진난는 것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도 부합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해상실크로드 사업과 제주신항만 연계성 고려 및 추진계획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는 RCEP의 15개 국가 간 관광협력을 강구하고 관광분야를 넘어 기타 산업의 협력 발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기능의 연계와 관련하여 협의와 논의의 장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중국 하이난성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RCEP 체결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사례로 고려할 수 있으며, RCEP 싱크탱크 라운드 테이블 포럼 등 각종 공동세미나를 추진하여 정책적인 안정성, 추진성 등을 더욱 제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간에 체결된 협력을 기회로 지방이 내실화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셋째, 신시대 새로운 관광협력을 목적으로 지방외교의 다양성과 추진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은 전부개정을 진행하였으며, ‘제10장 국제 교류·협력’이란 조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국제교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등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등 공동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관광분야 교류협력 역시 지역 간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우호관계에서 여러유형의 관계를 거쳐 실질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등으로 진화된 것을 고려하면, 한중 관광협력 역시 새로운 모델로 진화를 목적해야만 모두의 가치를 승격하는 수단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 양국의 협력이 마라톤의 페이스 메이커와 같이 상호조력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면 합니다.

